朝鮮日報 夕刊 五日(木)

英空軍 一個中隊派遣

【카이로四日發聯合】英國空軍一個中隊는 四日 카이로飛行場을 出發하야 埃及스단과 케니아의 地에 向하엿다

異常的大緊張裡에 聯盟理事會遂開幕

四日午后四時半쥬네브에서 亞國이나스氏司會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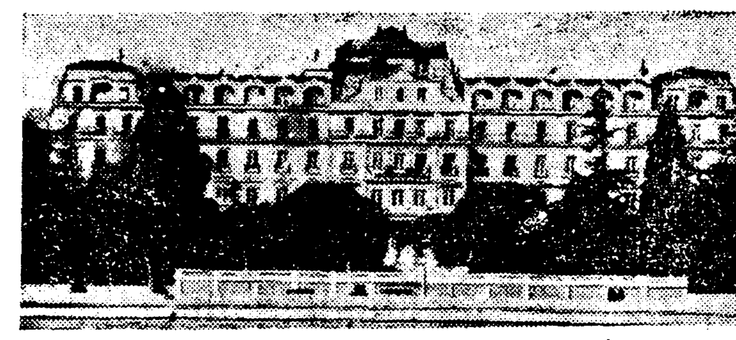
【쥬네브四日發聯合】伊에紛爭審理를 主要議題로한 第八十八回聯盟理事會는 異常한 緊張裡에 四日午後四時三十分(日本時間五日午前零時三十分) 聯盟事務局瑠璃室에서 亞爾然丁代表이나스氏司會下에 먼저 非公開로써 開會되엇다 出席各國理事國代表는 이러하다

英國 이든無任所相 佛國 라발外相 伊太利 알로이지男 蘇聯邦 리트비노프氏 체코슬로바키아 오시스츠키氏 墨西哥 코로즈氏 智利 빅나氏 西班牙 올리반氏 丁抹 뭉크博士 土耳其 아라스敎授 葡萄牙 바스콘세로스氏 波蘭 베크外相

伊에條約破棄! 聯盟支持力說等

各態各樣의各國代表의演說 理事會第一日經過

戰爭?



平和?

【電通쥬네브四日發】第八十八回聯盟理事會는 四日午後四時十四分(日本時間五日午前零時十四分)부터 非公開로써 開會되어 午後四時半(日本時間五日午前零時半) 亞爾然丁代表이나스氏를 議長으로 公開會議에 移하야 戰爭이냐 平和이냐 延하여는 歐洲全局에 重大關係를 가진 伊에紛爭의 審議를開始하엿다

劈頭에 이나스議長은 五名의 仲裁委員會가 왈왈事件에 關하야 意見이 一致되야 그報告를 聯盟에 提出한다는 旨를 宣言하고 이어서 이든英代表에게 對하야 巴里三國會議에 關한 報告를 要求하매 同代表는 巴里會商에서 英佛兩國이 伊太利에 提示한 和協案의 內容을 처음으로 發表하고 뭇솔리니伊首相이 同和協案을 拒絶한 顚末을說明한後

萬若 聯盟이 世界의 審判下에서 伊에紛爭解決에 失敗하면 聯盟의 權威는 無慘하게도 墜落될것이다 聯盟의 崩潰는 世界의 悲慘事이다

라고 言端이 날카롭게 强調하고 알로이지伊代表에게 一瞥을 與한後 다시 말을 이어 聯盟의 規約을 使用하는것은 吾人의 義務다

라고 結言하엿다 이든氏는 演說中 **不戰條約을 引用하엿는데** 이는 伊에紛爭에 關해서는 最初의 일이므로 자못 注目되엇다 이든氏다음에 라발佛首相이 發言을 求하야

佛國은 完全히 理事會를 支持하는 者이오 **理事會에서 반듯이 伊太利를 滿足시킬 解決案을 어들줄 確信한다**

는 旨를 披瀝한다음 드되어 알로이지伊代表가 登壇하엿는데 同代表는 自國의 利害關係를 爲하야 完全한 行動의 自由를 留保하는 旨를 宣言한後

伊太利는 에디오피아와가튼 **野蠻、不信한 國家와 同一하게 取扱되는 것은 絶對反對이다 如斯한 國家는 文明世界에서 逐出할것이다**

라고 暗暗裡에 에디오피아를 聯盟으로부터 除名할것을 主張하고 또 뭇솔리니首相은 **一九二八年의 伊에修交條約을 벌서 拘束力이 잇다고 認定할 意向은업다**

라고 條約廢棄의 强硬的 宣言을하야 滿場을 茫然케하엿다 다음 紛爭에 直接關係업는 諸國을 代表하야 西班牙 代表로케스·올리반氏는 英佛代表보다는 더 深刻하게 聯盟支持를 主張하고 最後에 에디오피아代表 세즈氏는 事態의 急迫을 指摘하야 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하엿다 이리하야 一日의 理事會는 午後六時二分(日本時間五日午前二時二分) 散會하엿는데 四日의 理事會에서 伊太利의 不屈한 强硬決意는 더욱 明白하게되어 쥬네브에는 무거운 空氣가 떠돌기 始作하엿다 그리고 다음 理事會開會日은 發表되지아니하엿스나 아마 五日에 續行할것으로 豫想된다 (카르는 聯盟본부)

이든英代表

라발佛代表

알로이지伊代表

次回理事會는 六日乃至七日

【쥬네브四日發聯合】理事會第一日은 次回開會를 未定한대로 散會하엿는데 아마 特別報告委員을 任命하야 伊太利政府의 覺書를 審議하고 理事會本會議는 六日乃至七日에 再開하고 委員會의 報告를 審議할것으로 解釋된다

十六日을期하야 斷乎、戰端開始?

四日午后閣議에서最後的決定 뭇솔리니決意强硬

【羅馬四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四日午前 再次緊急閣議를 召集하고 에디오피아討伐에 關한 最後的決定을 行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九月中旬 雨期가 끗남을 기다려 征討軍을 行進식힐 方針으로 解釋되는데 有力側의 情報에 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來十六日을 에디오피아侵略日로 決定하고 同日을 期하야 伊太利軍은 에리트리아國境을 突破하야 아도와에 向하야 雪辱을 目標로 進軍할것으로 觀測된다

(뭇솔리니伊國首相)

和協委員會報告書 聯盟事務局發表

伊國不利로紛糾增大?

【電通쥬네브四日發】伊에紛爭和協委員會의 報告書는 四日 聯盟事務局으로부터 發表되엇는데 왈왈事件의 發生責任을 에디오피아에 돌릴것이 아니라고 認定한 點은 明白히 伊太利代表部의 作戰에 障碍를 與한것이라고 널리信認되고잇스며 따라서理事會의 紛糾는 이에 依하야 그度를 加할것으로 豫想되게되엇다 報告要旨는 如左하다

一、왈왈事件은 要컨대 不幸한 狀況의 連鎖에 基한것으로서 이에 따라 發生된 諸事件은 不發的性質의 것이라고 認定할것이다

一、事件의 最初의 誘因이된 第一彈은 아마 全혀 不發的으로서 挑發의 意思는 업시 쏘은것이다 그리고 一週間동안 危險한 待機를 繼續해온 兩軍의 兵士가 昻奮한 疑心만흔 心情에 陷하엿스리라는것은 諒解키 不難한바이다 如斯한 環境下에 偶然 一發이 遺憾의 結果를 惹起하게된것이라고 推定된다

一、委員會는 各方面으로 檢討한結果 왈왈事件의 發生責任을 에디오피아에 돌리는것은 妥當치 안타는 結論에 達하엿다 왜그런고하면 第一로에디오피아는 右事件에 압서此種紛事의 發生을 豫防하려고 各種手段을 다하고잇던 事實이잇고 또 第二로 此種事件의 發生을 許하고 또는 進하야 이것을 挑發하는것은에디오피아自身의 利益과 明白히 相反된다고認定됨으로서다

曖昧한責任糾明에 에國代表抗議提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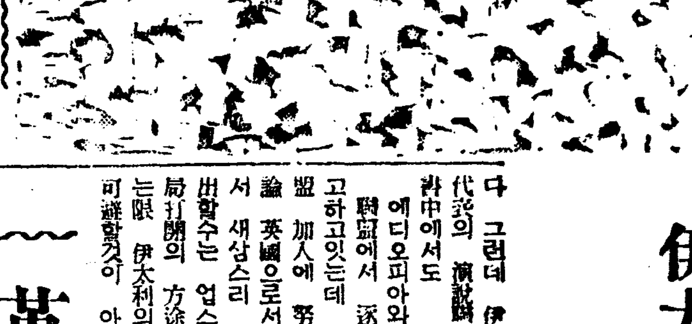
【쥬네브四日發聯合】四日의 理事會公開理事會는 少憩後 續開

利權讓渡契約 依然有效로看做

【아디스아베바四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가 아메리카會社에讓渡한 石油利權에 關한 契約이 歐米各國間에 크게 問題를 惹起하게된 結果 米國政府의 斡旋에 依하야 取消되게 되엇는데 에디오피아政府에서는 四日에 이르러 右報道에 關하야 何等 接한배가 업는以上 右契約에는 取消에 關한 規定이 업는것으로 解釋하고 契約은 依然 有效로 看做하는 模樣이다

死活岐路에선 聯盟의重大危機

伊太利政府의不屈的決意로 戰爭勃發은不可避



【電通쥬네브四日發】伊에紛爭에 關한 第一日의 理事會는 各國이 各其 立場을 披瀝한것만으로 終了하엿는데 알로이지伊代表가 이든、라발英佛代表의 和協解決勸告를 全혀 默殺하고 끗까지 目的貫徹을 敢行하려는 伊太利政府의 不屈의 決意를 表明한結果 聯盟과 伊太利의 間隙은더욱 깁허저서 和平解決의 希望은 거의 消滅된 感이잇서 紛爭에 直接關係업는 第三國의 代表와 傍聽席方面에서는「今日의 理事會에서의 伊太利의 態度는 背水陣을 친것으로 보이는 結局 갈데까지 가지안흐면 끗나지안흘것이다」라고 觀測하고잇다 그런데 伊太利는 알로이지代表의 演說에 提出한 覺書中에서도 에디오피아와 如한 劣等國을 聯盟에서 逐出하라고하고잇는데 에디오피아의 聯盟加入에 努力한 佛國은 勿論 英國으로서도 世界環視中에서 새삼스리 에디오피아를 逐出할수는 업스므로 어떠한 破局打開의 方途가 發見되지 안는限 伊太利의 聯盟脫退는 不可避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그리고 萬若 伊太利가 脫退하고 伊에開戰이되면 伊太利에 制裁를 加할는지 그러치안흐면 聯盟主義에 對하야 가장 重大한 問題가 기다리고잇다 이든 英代表는 相當히 强硬한 態度로 뭇솔리니伊首相에게 戰爭에 訴하지안코 聯盟을 利用할것을 要求한데 對하야 라발佛首相은 자못 微溫的인 態度로 聯盟擁護論을 唱道한데 不過하엿던것으로보아도 對伊態度에 對하야 英佛의 一致는 期待할수업다 그러라고 『조롱』外交에 昔日의 熱態를 볼수업는 今日 英國이 單獨으로 聯盟을 이끌기는 不可能하다는 觀測이 나리므로 伊에開戰은 歐洲全體에 波及될 念慮는 업다하더라도 이에 依하야 聯盟의 權威는 더욱 따에 떠러저 大戰以來 平和의 殿堂으로 적어도 精神的으로 偉大한 힘을 휘날러온 聯盟에 對하야 바로 死活에 關한 問題가 派生할 可能性이 잇다고 보인다

英艦隊地中海增派說全然否認

四日콤뮤니케發表

【倫敦四日發聯合】英國艦隊의 地中海增派說이 頻頻이 傳하고잇는이때에 英國海軍省은 四日 콤뮤니케를 發表하야 右報道가 全然虛構인것을 聲明하엿다 콤뮤니케全文은如左하다

英國海軍省은 地中海에 主力艦을 增派하고 地中海艦隊를 强化하고잇다는 風說이 頻頻히 傳하야 그眞僞에 對하야 照會를 밧게되는데 이風說은 地中海艦隊의 構成員인 主力艦 바람號가 修理後에 同艦隊에 復歸하는中에잇는 事實에서 生한것인 모양으로 風說은 全然事實無根이다 또 海軍省은 이機會에 이와類似한 風說即航空母艦 小數의 小型艦艇이地中海에向하고잇다는等의 風說도아울러否認하는것이다

이든英代表의 三國會商經過報告

【쥬네브四日發聯合】四日의 公開理事會劈頭에 英國代表 이든氏는 議長의 要請에 基하야 八月三日의 巴里三國會商의 經過를 報告하야 大要 如左히 述하엿다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에디오피아政府의 國境方面의 行動에 關하야 여러가지 不服을 說하엿다 에디오피아의 行政은 여러가지 改革을 要하는바잇서서 右試案의 骨子는 此等改革을 達成하기 爲하야 에디오피아政府로부터 聯盟에 協力을 求하고 또 財政經濟上의 獨占的利益을 伊太利에 認定할것을 要求하엿다 따라서 나는 此等 諸事情을 考慮하야 問題解決의 試案을 提出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의 完全한 同意下에 行할것을 前提로 自由로운 內容을 가진것이다

一、에디오피아政府를 도와서 國內行政의 根本的改組를 斷行하기爲하야 聯盟으로부터 專門委員을 任命할것

一、同時에 에디오피아國內의 伊太利의 利益을 擁護하기爲하야 特別한 方法을 講究할것

一、英佛伊及에디오피아四個國政府는 新條約을 締結하기爲하야 交涉을 開始할것

政務總監江原忠北道에

今井田政務總監은 四、五日豫定으로 江原道春川、忠北忠州를 近近視察할터이다

八面鋒

◇『所有의神聖』이라는 威力으로 學院建物을 封鎖하는家主。

◇『우리의學校를 救하자』는 錢을모아 百七十餘圓을 만들은學童。

◇ 하나는 權이오 力이오 하나는 情이오 誠일뿐。

◇ 事態는 버려질대로 버려질것이오、學童은 册을끼고 街頭로 헤매일뿐인가。

◇ 社寺나 書院을 尊重하야 함부로 處分하지 못한다는規定이 잇다하면、

◇ 敎育機關에도 어느程度까지는 物權의行使를 制裁할 方法이 업슬가。

佛伊軍事提携 着着進捗

【巴里四日發聯合】東阿植民地討征을 압두고 伊太利陸軍參謀總長 바드리아元帥는 四日 巴里에 到着하야 陸軍省에 陸軍大臣을 訪問하고 懇談을 遂하엿다 이어서 카므랑參謀總長을 訪問하고 午餐을 가티하엿다 佛伊兩國政府間에 着着軍事的提携를 進行하고잇다고解釋되는데

스運河十隻通過

伊太利軍艦三四兩日間

【스에즈四日發聯合】雨期終熄을 압두고 伊太利政府는 着着 國軍을 東阿植民地로 輸送하고잇는데 스에즈運河會社의 報告에 依하면 九月三、四兩日에 亘하야 스에즈運河를 通過한 伊太利運送船은 十隻으로 그中三隻은 軍隊를 輸送하고 다른七隻은 軍需品을滿載하엿드라고한다 二日間에 輸送된 伊太利軍兵員數는 七千이라고 稱한다

人事·集會

▲范漢生氏(中華民國京城駐在總領事) 五日午前十一時長崎着明六日午後三時京城着歸任

▲宇垣總督 明六日午前八時自動車로 京畿道驪州서 開催中인 農道講習會에 赴할豫定

▲神津辛右衛門氏(日本航空輸送株式會社京城支所長) 新任人事次來社

▲德留清一氏(滿洲航空株式會社員) 同上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册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册을 無代贈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一年三個月 卒業 普通科 一個年 卒業(速修隨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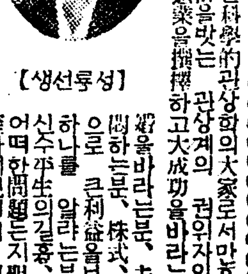
學則開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 月刊獨學의通信을 每月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 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 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人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박은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選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에서로煩悶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 큰利益을보고저、損害를당하는분、其他、당면하는문제로、苦憫하는분、訴訟의勝敗等 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親切히 判斷하며 開業成功의길을보시고 운수가티운분은하시요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 생년월일과 面貌(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를자세히적으시고 返信料를付送하시면 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

有利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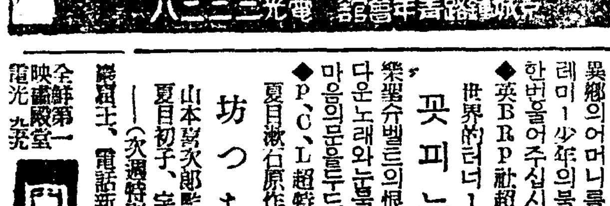
▲有利事業의一部分=●各種石鹼●各種蠟燭●食酢(酢の素)●サイダー●各種ポマード●各種香油●其他日用品、化粧品七十餘種

工業原料 醸造材料 直輸入商 京城鍾路四丁目一 榮信社工業所 振替京城二一〇五番 電話光化門二三二四番

結婚 今般萬花堂은 大擴張키爲하야 百年佳約의結婚式을 新築인고로 洛成新婚費 一個月동안 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 紳士淑女諸氏는 一次旺臨하심을仰望하나이다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六四 萬花堂 電光二〇九三番

腫氣 靑山膏 에는 움 히벽고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 無料 主任 曺秉學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電光二二二八

Columbia 流行歌 沙漠의牧歌 金銀玉 漫謠 이질색아 秋月影 新民謠 사랑타령 張一朶紅

이러케좋은레코-드를 八十錢에 살수있을줄이야? 콜럼비아大衆盤 리-갈레코-드

OKEH 요즘에流行하는 新民謠 앞강물흘러 獨唱 李銀波 오케-레코-드(一七九六番)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二八

九月五日낫부터二日間 每日三回 正午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八時 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朝鮮映畫 銀河에흐르는情熱 原作脚色監督=安鍾和、撮影=李明雨、出演=李源鎔、李慶善、沈影、朴齊行、申一仙、柳新芳

活劇 歡呼의涯 主演 조-지、반크로후트氏

封切할 朝鮮名畵 次週七日낫부터 當堂이朝劇에서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五九

九月四日封切 新秋第一週의强力陣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佛PB社超特作日本版 집업는아이 로벨、리난少年 主演 엑돌마로名作의映畵化 異鄕의어머니를차저서三千里! 레미-少年의눈물겨운 한신세를마음껏 한번울어주십시요

◆英BRP社超特作日本版 꼿피는시절 世界的러너-1리히알르도빠主演 樂聖슈벨트의恨만흔靑春이、아름다운노래와눈물노또다시여러분의 마음의문을두드립니다

◆P.C.L超特作全發聲映畫 坊つちゃん 夏目漱石原作 山本嘉次郎監督 夏目初子、宇留木浩主演 (次週特別大興行) 滿員王、電話新撰組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五

大封切 九月十二日부터=九月十五日부터 스라닥구 主演...구세니아레스니엘孃 監督...조하네스마이엘氏 獨乙우파社超特作名畵 戀愛活劇 妖魔의塔 全六卷 現代劇 旅鳥 全六卷 監督...服部眞砂雄氏 主演...中野健治氏 河合貞美子孃 大都映畫社超特作無聲版

浪花館 洋劇 九月六日밤부터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半 始映 메도로社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活劇 旅客機의怪盜 全八卷 監督...작크콩웨-氏 主演...하바트마살孃

九月一日より 邦畵界超特別大興行 夜七時三十分より

一、松竹蒲田超特作全發聲 眼と耳の新聞(第二十八輯) 野村浩將監督 北村小松原作 田中絹代主演

二、

三、松竹下加茂超大作全發聲 東京大阪朝日新聞連載之上於菟吉原作 伊藤大輔=脚色 衣笠貞之助=監督 林長二郎一人三役=主演 雪之丞變化 於菟吉、大輔、貞之助、那麼界最高最大のスタッフ、右太プロ、新興京都プロ、松竹キネマの三社が網羅して彩る大年度劃期的超大作!!

夢うつつ 時は一九三五年流線型流行の今日 戀愛から結婚までスピード流線型 花嫁讀本虎の巻!! 油の乘りきった清將監督得意の超ユーモア篇!!

城壁崩壞一族慘死 原因은電柱濫設

保存古蹟으로指定한라는東小門城壁

總督府서調査判明

지난칠월이십삼일 오전오시경에 동소문(東小門)성벽이 문허지어 사외도당리(敦岩里)오백십삼번지의 방수규(方壽圭)(四○)의집이도괴하야 주인방수규와 그의장녀(一六)와 차녀(三)는 무참하게도깔려죽은일이잇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당시에는 피해자든지 당국자이든지 모도가 단순히칠월이십일일 이래의 폭우때문에 성벽내부의 토사(土砂)가 물에한때문에 집이 문허지어 이와가튼 참변을 이르킨것으로만알고잇섯다

그런데 이성곽으로 말하면관유재산으로 총독부에서 관리하고 잇슬뿐아니라 동소문과 성벽은 총독부 사회과에서 고적보존령에 의하야 지정을 하야이것을 영구히 보존할의사가잇든터임으로 그공고한 성벽이약간의 폭우에 문허진것은 괴상하다하야 총독부의명령으로 그간 경성세무감독국과 경기도에서 긔술관이 현장을자세히 탐검하야 조사한결과는 최근에의외에도 그중대한원인을 발견하엿다한다

즉 혜화동(惠化洞)삼번지안내의 성벽우에 일즉경성전긔회사에서 전주(電柱)두개를 가설하엿는데 그가설한곳에 여러해동안 빗물이침투(浸透)하야 성벽에 이완(弛緩)이생기어 칠월이십일일이래의 폭우에의하야 문허진것으로 원인이판명되엿다 다른성벽에는 한등이상이업고 오즉전주두개를 가설한장소부근만이 문허지어 극빈한 전긔초가집 빈민의 주인과 가족을참사케하엿스니 그들은집을일코 일가의 장녀일분이죽엇슬뿐아니라 두어린아히까지 참사한광경은 당시에도 실로목불인견으로 지금도 긔억이새로운터로 전긔와가튼 원인을맨들은 이에대한책임은 경성전긔회사에게 당연히 도라가게되엿다한다 대체동소문과 성벽은 총독부의관유재산임으로 경성세무감독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잇는데 경성전긔회사에대하야는 전주를세워도 조타고 사용허가를한일도업는데 경전에서는 임의대로관유고적지인 성벽우에다가 전주를세워 이것이붕괴되도록 만들고 결국세가족에게 참변을당케한데대하야는 엄중한 처단을할터이라하야 최근에 이에관한 조사전부를 마치엇다한다

崩壞原因은 電柱가分明 美座稅務監督局長談

변항과가튼 동소문성벽이 문허진원인이 경전에서 전주를세운때문이라하야 전주철거를 명령한경성세무감독국 미좌(美座)국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그성벽으로 말하면 관유재산인 관계상 세무감독국의관할로되야 잇는데 일전 비에 문허젓다 하기에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본즉 경전이 전주를성벽우에 세운때문에 성벽이문허지어 인명의 참사까지 생기엇다 그럼으로 본래 경전에다가 전주의 부지로 사용하라고 허가한일도 업슴으로 우선전주의철거명령을 발하는동시에 이사건의 전후 처치에대하야 총독부 재무국과 사회과와 협의중이다」

城壁崩壞는 原因이未詳 京電當局者談

동소문 성벽도괴와 따라서 이때문에생긴 가옥도괴와 인명의참사사건을 내인 직접 원인이 경전에서 이곳에 무단으로 전주를세운데 잇다하야 그책임이경전에잇게되엿는데 이에대하야 경전의 서무주임의 말을들으면 다음과가티 「그사건에 대하야 세무감독국에서 전주의철거명령은 왓습니다 그러나 성벽문허진것이 전주를 세운때문이라고는 밋지안소 전주의 철거에대하야는 긔술과에말을하엿스나 어떠케 될는지요 총독부에서는 전주때문이라고 말하나 그원인은 사실은 자세히 알수가업다는것이 현재의 우리가 조사한결과요 요컨대 성벽문허진원인이 우리회사의 전주때문이고 따라서 집이문허지어 사람이죽게되얏다는것은 우리는 그러케알지는안소」하고 아주말이 모호하고 책임이업는듯이 우물주물하여버린다

京電의引責을 當局이嚴達

官有地無許可使用의 電柱撤去도嚴命

전과와가티 동소문 성벽이 문허지어 그부근에잇든 집이문허지고 사람이 셋이 참사하게된원인이 경성전긔회사에서 전주를 무단히 세운데 근본원인이잇는것을 발견한 총독부에서는 우선직접 이성벽의 관리자인경성세무감독국으로하여금 지난팔월 이십일일부로 경성전긔회사에대하야 전주의 철거명령을발하게 하는동시에 관유재산이고 고적으로 보존하야둔 성벽에다가 전주 부지로 사용허가도맛지안코 무단으로 공사를하야 드디어 성벽을 문허지게하며 또인명을 사상케한데 대하야는 이에대한 책임을 저야될것을 경전당국에 엄중히 명령하엿스나 아즉 이에대한 아모성의잇는회답도 업슬뿐아니라 전주도철거치안코잇서 당국에서도 그처분을고려중이라한다

擴聲放送時間을制限 街頭에騷音緩和

라듸오蓄音機商을召集警告

鍾路署管內서實施

긔보=경성시내에 잇는 「라듸오」 축음긔상점의 선전광고에 의한 고성소음 때문에 「도시생활자로 고통이 자심함에 비최여 그소음방지에 관하야 당국에서 그간세밀히 고려중이던바 그중에도 가장 그필요를 늣기는 시내 종로서(鍾路署) 관내에서는 동서 소판(小坂)보안주임이 사일오후 한시경에 관하 「라듸오」 축음긔업자 십륙명 전부를 소집하야 장시간동안 상호간 충분토론협의한결과 드듸어 다음두항목의 결정을 보앗는데 이로인하야 종로 관내는 악긔업자들의 무리한 권리행사로 인한 소음이 견제되리라한다 즉그결정된 요항은

一、영업자 각자가 스스로 자각하야 필요이상의 고성의음을내지안토록 제한할것

二、고성악긔의 사용 시간을오후렬시부터동한시까지 사이만허가한다는것이다

二審까지放火犯 高等法院서無罪

보험금을 타먹을 양으로 자긔집에 불을 질럿다는 사실로 일심에서나 이심에서 모다 징역칠년의 판결을 바든 방화피고사건이 오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엇다 사건의 피고는 신의주상반정(新義州常盤町)오십이번지에서 오복상(吳服商)을경영하는 촌안청치랑(村岸政治郎)(三○)으로 그는대정십삼년 이래 전기장소에서 오복상을경영하고 잇섯는데 빗(債)에졸려서 일즉이 대판해상 화재보험 회사(大阪海上火災保險會社)에자기집두채와 가구기타 의복등속을 이만원 보험에드러잇는 보험금을 차저먹을양으로 금년일월일십오일 오전렬시반에 자기상점에석냥불을그래 부처서 그상점가옥과상품들을 전부 태워서 사만팔천삼백원의 손해를 당하게 되엿고 그이웃집 한재까지 전부태워버렷다는것으로 신의주 지방법원에서나 평양복심원에서 모다 방화죄로 징역 칠년의 판결을 밧고 불복상고 하엿슴으로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결과로 증거에 의지하면 처음에 불난장소는 그상점내부가 아니고 구석부근인 상점 남동(南東)편 구석인것을 미루어 알수잇다 그러므로 피고가 경찰서에서 자백한 사실과는 부합치 안흠으로 그화재는 피고의 방화로 인정할수업다하야 결국 무죄를 언도하엿다

主人돈千三百圓 横領한店員被捉

시내 련건동(蓮建洞)일백칠십팔번지 해산물상회 촌서언치랑(村西彦治郎)의 점원이좌등웅부(佐藤雄夫)(二一)는 지난삼월부터 륙월동안에 동상점 주인의 소절수 륙백원을 진출하여쓰고 또 집금한돈 칠백구십원과 합계일천삼백칠십원을 횡령해먹고 종적을감추어 버렷섯는데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박(朴)목뢰(牧瀨)량형사가 이를탐지하고 멀리 평양부황금정(平壤府黃金町)팔천대(八千代)려관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지명수배하여 오일새벽에 체포하엿다

鍾路署高等係서 인테리女性取調

사일새벽에 시내종로서(鍾路署)고등게 형사대가 돌연활동을개시하야 시내모처에서 일본내지인인테리녀성사조광자(四條光子)(二三)를 체포하여다가 목하 자못긴장한 가운데 비밀히 취조를하는중인데 사건일체를 비밀에부침으로 아직 자세한 사건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사조광자는 만주(滿洲)와 중국등지를 다년간 류랑하던 경력을 가진 녀자로서 만주에서 수일전에 조선에 들어와잇던것으로 종로서고등게에서는 그의 경력과 하려관계로 혹시 적색(赤色)「레포ー터」의 사명을 띄고 들어온 여자나 아닌가하야 류치시켜노코 계속취조중이다

朝共再建同盟事件

崔善珪等九名明日公判

지난륙월이십구일에 경성지방법원 제일예심게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유죄로 결정되야그 법원공판으로 회부되엿든 조선공산당재건 동맹게통의 강릉공산청년회 준비위원회(江陵共産靑年同盟準備委員會)사건의 관게자 최선규(崔善珪)등아홉명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륙일오전아홉시에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 대판(大阪)검사의 담임으로 개정하기로 되엿다 경찰에 검거되이래 삼년만에 이제야 유죄무죄를 판정할 공판이열리게되엿것다

産婆看護婦試驗

경기도에서는 아래와가치 산파간호부시험(産婆看護婦試驗)을 시행하리라는데 원서는 구월이십칠일까지 접수한다고한다

▲學說 十月八日午前九時(産婆) 同午後一時(看護婦)

▲實地 十月十一日午前九時(看護婦) 同十二日午前九時(産婆)

弑父犯吳天一 再審請求檢事棄却

證據提出업시趣意書만은不足하다고

運盡된生命은死刑에

생명보험금을 차저 먹을양으로 자기집 사용인을 교사하야 자기아버지를 찔러죽엿다는 평양의 오천일(吳天一)(二七)은 일심에 무기징역 복심에서 무죄 고등법원에서 사형의 판결을 밧고 지난 오월이십칠일에 억울하다는 사정을 장황히 긔재하야 재심청구(再審請求)를 하엿든바 오일에 히두(檜垣)재판장으로부터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될에도 불구하고 취의서(趣意書)만으로 다만 증인박성범(朴成範)박천만치(朴天萬治) 추학순(秋鶴順)의 증언(證言)과 피고가 평양경찰서에서 자백한것은 전부 허위(虛僞)라고 하엿슬뿐이므로 이것은 실당(失當)하다」하야 결국 기각의결정을 내리웟다 그리하야 오천일은 이제는 어찌할 도리업시 교수대(絞首臺)에 올르게되고말 운명에 노혀 잇다

雜多한告訴事件 "有利解決"福德房

豫審決定書에나타난 前檢事曺仁煥의犯罪內容

경남진주(晉州)지방법원검사로잇던 조인환(曺仁煥)(四二)외 십일명에관한 독직문서위조행사사긔(瀆職文書僞造行使詐欺)사건은 사일에 부산(釜山)지방법원예심계에서 예심이 결정되어 정원식(鄭源植)천석민(千錫敏)은면소되고 진호준(陳虎俊)은 미결에서 사망하여 공소기각이되고 김사영 조인환에대한 문서위조행사 사긔에관한 공소는 면소되여 남어지 아홉명이 공판에회부되엿는것은 기보와갓거니와 이제예심결정서에 나타난 그들의 범죄내용을보면 피고조인환은 소화구년 일월하순경에 진주읍영정(晉州邑榮町)홍학봉(洪鶴奉)에게서 김한서(金漢瑞) 김한관(金漢琯)량명에대한 공문서 위조사긔의 고소의목적을 달하여 주기를 밀약하고 이월이십륙일에현금오백원을 수뢰(收賄)하엿고 소화팔년 십이월 이십오일경에 그의 애첩인 긔생 방금선(方錦善)의 손을거처서 피고 정봉엽(鄭奉燁)이가 산청군단성면 백운리(山淸郡丹城面白雲里)리준엽(李俊燁)배상혁(裵相赫)을 무고한고소를 유리하게 하여준다하고 두번에나노아 합게륙십륙원팔십전어치 물품을 수뢰하엿고 그후 소화구년시월십륙일에 피고 강병규(姜炳奎)로부터 진호준(陳虎俊)의 고소사건 리게선(李桂善)의피의사건 강대린(姜大麟)의 고발사건등을 유리하게취급하여달라는 청탁을듯고 수처에서 주식의 향응을바든외에 강병규단독으로 현금백원을 증뢰하는것을 동인의처김아지(金牙只)의손을거처서 바닷스며 그외에 사건을 유리하게 해준다는것으로 주식의향응을 바든것은 소화팔년 사월상순경에 장지린(張志麟)에 대한 문서위조 행사피의사건을 피고박학봉(朴學鳳)의 의뢰에의하야 과대히 처분할것을 승락하고 삼천포(三千浦)충야옥(沖野屋)에서 륙십륙원이십사전어치 주식을 향응 바든것을 필두로하야 전후여섯번에 사백사십여원 어치라한다 더욱히 피고 정원식(鄭源植)에게서 분묘발굴 이장문제에 대하야 검거를 하지말어달라는부탁을밧고 고성군(固城郡)내에잇는 그의토지륙천원짜리를 일천이백오십원에 할인하여사서 결국 사천칠백오십원의 리익을먹엇다는것이다

十五歲少年溺死

부내 동래정(東萊町)삼정목이백삼십팔번지 최성팔(崔成八)의맏아들 석구(錫九)(一五)는 지난삼일 오후한시경 동무한명과함께 한강(漢江)으로 수영을나갓다가 실수하야 동무시경에 무참히빠저죽엇는데 시체는 그아버지되는 최성팔이가 이비보를듯고달려와서 인부십여명과함께 수사작업을한결과 동네시경에 겨우건저내엿다한다

애꿎은寡婦의설음 눈물의說諭願

男子의甘言엔毒이잇다

사일아침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보안게에 젊은녀자 한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한사정을 쓴 기나긴 설유원을 제출하엿는데 그설유원에의하면 이눈물의 주인공은 시내주교정(舟橋町)이백번지 김순이(金順伊)(二○)—假名—라는 십년전에 경성부청 고원을 단이던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로 아들하나 딸하나를데리고 남의바느질품을들어 근근히 생활을 하여가던중 금년사월경에 시내 종로(鍾路)오정목 일백팔십구번지 일성려관(日成旅館)주인 박성한(朴成漢)(五○)이란사람이 아히를 교육까지 잘식혀준다는등 감언리설을 하야 전긔 김순이를 첩으로 다린후 그후다섯달이되도록 푼전하나안주고 오히려 바느질품을 팔아근근히 모아둔돈 이백이십원까지 사취해먹엇다는 것인데 동서 리(李)보안주임은 이를동서사법게로넘기어 목하 형사실에서 전긔박성한늙은중 취조중이다

無辜未決一年半 補償金四百餘圓

원적을 경남 경주읍 황남리(慶州邑皇南里)에두고 시내 통동(通洞)백십일번지에 거주하는 리경선(李敬善)은 지나간소화팔년 십일월에 사문서위조등사긔죄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구인되엇다가 동구년 십월십일에 무죄판결을 바든것을 검사공소로 다시 동십년 이월십구일에 동복심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밧고 석방되엇는데 동인은 그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결과 미결구류사백륙십사일동안 매일 일원식 계산하야 보상금을 밧게되엇다

長江流域災地에 飢餓民百萬突破

災害를機會로共産黨大跋扈

中央政府도束手無策

【上海二日發聯合】 지난여름의수재로서 장강(長江)류역과 황하(黃河)류역의 피해는 의외로심각하야 민국이십년의 대수재에필적한수재로 호북성만 하드라도손해가 이억원에 넘으리라고전한다 이까닭으로 기아선상에 헤매는재민은팔백만이를 돌파하야 호북(湖北)산동(山東) 하남(河南) 안휘(安徽) 강소(江蘇) 광서(廣西) 각성으로부터 중앙정부로구조의탄원이 매일답지하는 현상으로 그대부분은 거절되고 수재공채오천만원도 시기에 미치지못하고 거의 속수무책인 현상이라고한다 이기회를 리용하야 공산분자들은 수백만의 리재민들에게 활동을시작하야 궁민들은 점차폭동을 이르키게되고 피해가격심한 호북성의 기춘(蘄春) 황매(黃梅) 황안(黃安)지방등 몇개현(縣)은 이미 절반이나 적화가되고 잇슴으로 당국은 실색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고잇는중이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颱風은 大東島의 南方海上에 잇서가지고 中心七三六『미리』가량으로 北西에 進行하고잇스나 아즉어데나 影響을 밧고잇지안타。小低氣壓은 上海의 南方과 濟州島附近과 北滿과의 사이에잇고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으로부터 日本海를 거처서 北朝鮮에 퍼지고잇다 滿洲及朝鮮의 中部以北은 개이고 新義州附近은 안개가나리고 南東岸으로부터 關西地方에 빠더서는 비가 나리고 關東地方以北은 晴曇不定으로 곳곳마다 안개가끼인다

昨日 最高 二三、六 最低 一九、○ 今日 正午 二一、七

運動競技欄

京城에서열릴 올림픽의밤

"氷上映畫와梨專코러스出演"

十日밤、本社大講堂서

우리 스포ー츠界를 代表하야 世界氷上制覇를 目標로 明年二月 獨逸에서 열리는 第四回 冬季올림픽에 出場케된 朝鮮이나흔 氷上의三傑 金正淵、李聖德、張祐植三君은 오는 十二月에 戰地로 向할터인데 이들 스포ー츠使節을 國際舞臺로 보내는 海內스포ー츠팬들은 眞情의 一端이나마 物質的으로 表現하야 壯途에 올르는 三代表를 聲援하며 激勵하려는 意味에서 全朝鮮各地에서 『올림픽의밤』을 열기로 되엿다함은 旣報한바와갓지만 이미 지난 三日에 新義州에서 첫출을 열어 盛況을 이루엇고 平壤에서는 今六日夜 崇實講堂에서 열리게되엿스며 京城에서는 來十日 午後七時半부터 本社大講堂에서 意義기픈開幕을 마지하게 되엿다 이날의 프로그람은 一九三二年 米國에서 열리엇든 第三回 世界氷上올림픽大會實寫、스포ー츠講演 金正淵外 代表選手의 人事、梨花女專코러스、其他의 音樂과 舞踊等의 興味津津한것으로 벌서 부터 當夜의 盛況을 豫期케하는바 入場料는 白券一圓、靑券五十錢이라하며 當夜의 純益金은 世界氷上올림픽派遣選手後援費에 充當하기로 되엿다한다

(寫眞은 『올림픽의밤』 宣傳 포스타ー)

崇專蹴球部 東京遠征

來十二日에發程

【平壤】 崇專蹴球部는 平壤에서 가장 歷史기픈 길흔더러 그實力을 世上에 자랑하고 잇섯스며 더구나 關西體育會主催 今年度 全朝鮮蹴球大會 靑年部 覇權을 獲得하야 無敵蹴球軍이란 世評을 밧은 崇實專門學校 蹴球部에서 日本遠征을 計劃한다함은 旣報하엿거니와 그후 同部에서는 夏期放學사이에 猛練習과 싸우며 猛烈히 練習하야 一層 實力을 養成하고 自身이滿滿한가운데 오는 十二日午前十時四十一分 平壤驛發 「노조미」 監督朴永哲氏引率下에 出發한다는바 一路 東京으로가서 工大의一流強軍을 相對로 四回試合을하고 歸路에 關西地方과 朝鮮으로 건너와 大邱 京城等地에서 諸強軍과 挑戰하리라한다 그런데 相對팀은아즉 完決치못하여 追後發表하겟거니와 同軍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監督 朴永哲 ▲主將 尹昌善

▲選手 沈永烈 金永根 金仁喆 金東奎 朴淸煥 金寶守 金景奎 林應俊 金應瑞 尹昌善 盧灣森 李昌植 朴炳烈 朴相祿

硬式庭球大會

朝鮮庭球聯盟에서는 十四日부터 五日間 第四回 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를 開催하리라는바 第一日은 軟式及硬式戰으로 十日午後四時까지 朝鮮庭球聯盟으로 加盟團體中에잇는 朝鮮庭球聯盟加盟團體는 一團體 參加金二圓을 添付하야 申請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留學生武道會員召集

東京留學生 武道會에서는 來十四日에 열릴 同會主催의 柔道大會를 압두고 其他事項을 決議코저 十日午後三時 同會臨時事務所인 新設洞朝鮮研武館에서 執行委員會를 召集할터이라는데 會員은 無漏參席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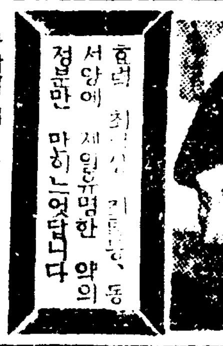
北中國遠征의 中央基督拳鬪 昨夕에凱旋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北中國天津과大連等地에 遠征하야 二戰二勝의 良好한戰績을 거두운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아마츄어拳鬪軍一行 洪在洪外六名은 元氣旺盛裡에 四日夜仁川入港의 共同丸으로 午後七時 京城에 凱旋하엿다한다

米國아마野球팀 今秋日本서招聘

【東京電話聯合】 東京大學野球聯盟理事會를四日夜에열고明年여름伯林에서開催되는第十二回國際올림픽大會에 參加할 日米野球選手問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大會參加를압두고 今秋米國아마튜어選手候補팀을 招聘하야 六大學팀과 日米交驩試合을 行하기로 大體決定하엿다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 최고、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 정보만 마히느엇답니다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잇스나 백살까지 자기몸이튼튼하고 원기가왕성하여야 사회에서 하고십흔일을할것이 인생의 향락도 영구히잇슬것이다. 그런고로 다년연구한결과 먹는약으로 보음보양하며 로인도 원기가 왕성하야 청년과갓치될수잇는 즉 불노초라할수잇는 생식기를발견하엿다 지금보음의 묘약인 이 약이니 호르몬약이니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생식기만흥분식혀 양기외적으로만 업세고 그후에는 심히 약하여지고마는 이가이자(KAIZ)는 동물의원기와 기를 보양하는동시에 보양보음을 하야 생식기능을 자연히 흥분식히는것임으로 원기와 양기는 점점왕성하여 질뿐이요 쇠약하야지지 안는다. 류행병을 알엇던지 과음으로 고통하고 또선천적으로 몸이약하야 양기부족하고 원기업고 신경쇠약증이 잇는분은 속히이자를 쓰시오. 양기부족、음위、속히되는분、불감증、쾌감업는분、신경쇠약、빈혈증、

【약가】 중용엔十원、경중엔五원、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 선금은무료(양이환약이오)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낫습니다

효력 최고상 최득능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약 도만히 들어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 전보다만히더늣엇답니다

사람이 제일보하 건강하여야 하고십흔일을하는데 근래는튼튼한 사람이 적고 약한분이만어진다 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가부족하야 마음대로일을못하게되다. 이것은문명이발달됨에 따라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 뇌를마히쓰게되고 애를쓰고 번민이만하여지고 자연히원기가쇠약하여 빨니쇠게되다. 따라서 양기도업고 최후에는 신경쇠약이니 폐병이니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되다

一、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림독성 방광염 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염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요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유전또는전염으로발생하야 대개다시루바르산주사 백륙호주사 멧대하여야 겨우일시적으로 낫는듯하지만 완치가잘안되고 여러번재발함으로

만일무슨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변에 안맛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돈을 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町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건신성당의골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애기똥질하는데 사과를먹이면 낫는다

의학자들이 실험하니 백발백중

그러나 잘익고 성한것을

어린애기네들이 똥질을 할 때 사과집을내 먹이면 백발백중 신효하답니다。본래부터 일본내지 일부지방에서 그러한 속설이 돌아 다니엇는데 앙수의학전문학교 근본박사(根本博士)의 실험으로 아조증명이 되얏답니다。사과가 몸에 리하다는 것 쯤이야 누구나 다 아는 바지요만은 그러케 신효한약이된다는 것은 사실로 의외의 소식이옵씨다。본래 애기네가 만히 굿기게 되는 것은 똥질관계라고 하야도 과언이아닌데 지금부터는 소쉬게 그똥질을 고치게 되야 애기네의 생명보장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잇게습니다。근본박사의 말을 드르면 사과집으로해서 전일본의 소아사망률(小兒死亡率)이 백분지이십오로부터 백분지십으로줄어 들엇다나요。그수자는 꼭그대로미듬즉 업더라도 신효하다는 것만 사실인 모냥이지요。

×

어린애게 똥질에 엇재서 사과가 그처럼 신효한지 그리유만은 약죽 불분명하나 하여튼 사과를 먹은즉 창자나 위주머니에 엇든독(毒)이 외부로배출(排出)되야 버린답니다。보통 똥질은 말할것도 업고 심지어 적리(赤痢)가튼것도

이삼일동안에

깨끗이 나흔례가 잇습니다。그 야하립 집으로해서 먹어야만되다는것도 아니올시다。조곰큰애기들에게는 그대로 먹이서서조코아조 싱싱한것은 껍질채 먹이서서 조습니다。그런데 서양속담에 아침에 먹는사과는 금이요 점심때 먹는사과는 은이요 저녁에 먹는사과는 구리라고하니 그것은 저녁보담 점심때가 더효험이 잇고

점심매보담은

아침이 더효험이 잇다는 말입니다。이왕 먹이실빼에는 구리로나 은으로먹이지 말고 금으로 먹일것이라 아츰을 택하시는것이 조치 안 할까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것이 금이고 은이고는 다음의 문제요 맨먼저잘익은것을 골라야 할것이 아닙니까?익지 안한 사과를 아츰에 먹이시는것보담은 잘익은사과를 먹이는 것이

효험을더보게

될것이 아니오니까?잘익엇나 안 익엇나를 아는데는 몃가지의 표준이 잇습니다。즉

첫재、모냥이 반듯한것

둘째、꼭지가 길지도 안코 짜르지도 안 한것

셋재、전체로 빗이 누르스름한것

넷재、가루짜개서 씨든 곳이 오각(五角)이지고 씨가 꼭백인것

등으로 그런것은 잘익은 것이요 그러치 안한것은 안 익은 것입니다。물론

가튼 사과라고

해도 그중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잇습니다。종류에 딸아그 성분도 조금씩 틀릴것이 사실이나 어느것이 제일 조혼지는 아즉 모른답니다。

×

하로 얼마나 먹인다고 일정한 분량도 정할것도 업습니다 과식만을 피해서 조습니다。그러나 대개로 말하면 보통돌질에는 하로여섯개쯤이가장 알맛고 리집에는 열개쯤도 해롭지 안습니다。잼을맨든경우 그 맛을 좀더 조케하려면 사탕보담도 사카린을 조곰너흐면 신맛이 업서집니다。

(애)

紙上動物園……【五】

동물게의 거한들

코키리 와 하마

이웃간에살면서 량큰자랑

륙지에서 나는 동물중에서 제일큰것은 코키리입니다 몸집이 큰바위돌처럼 동굴동굴하고 살이몹시 두거워서 예사총으로는 쏘아야 구녁도 안뚜러질것처럼 생겻지만 동물중에서 제일영리한 즘생입니다。원숭이가 영리한듯해도 영리하지못하며、의리가잇고사근사근하기도하고、물끈하는성미도잇는 말하자면 사람과근사한성격을가진동물입니다

인도지방에서는 이코키리를우리조선에서 소나말을 기르드시 길려 짐도나르고 밧도갈며 심지어 어린애를보살피게까지합니다 속담에 꿈을킬드려 어린애를맷기면 잡재운다고 뚜덕뚜덕하거나 얼굴을비버서 어린애가죽게 된다합니다。꿈이란동물이 멍청하다고해서 한말이겟지요 그러나 코키리는자기의힘을알고 결코이가튼 멍청한짓은 안합니다 요람(搖籃)속에 잠자는어린애가 깨어서 울면 요람을 흔들흔들해서 잠재우고 파리가 얼골에 안즈면 코ㅅ김으로 날려보내고 만일에 어린애를 해칠사람 또는 동물이 달려든다면 기어코 해내고 만다합니다

코키리는 그기다란 코가우리네의팔이나 손가락과 가튼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바눌한개가땅바닥에 떠러저잇서도 용케집어올립니다

그런데 코키리에는 두가지종유가 잇습니다 한종류는 인도에서나는 코키리 이며 한종류는 아푸리카에서 나는 코키리입니다 우리네가 보는코키리는 거의다 인도코키리지만 아푸리카 코키리는 귀가 큰것이 특생이고 외모도 약간 다르지만 요시 그음중한몸、기다란코는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도코키리는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에게 길이들지만 아푸리카코키리는 그러치를 못합니다

◇

창경원에는 몃해전까지 몸무게가 일천오백관이나되는 무섭게 큰 코키리가 잇섯습니다만 그것이 죽은뒤 현재에는 그보다 적은것이 두마리 잇습니다 적다고는하지만 천관가량 무게가 나가리라합니다。밥주는 사람과는 정분이 두터워저서 각금히롱하느라고 각금 코로 드릇다 노키도하고、섬술이 날때는 빗자루、쓰레배끼 가튼것을 빼서서 발로 누르고 세상업서도 안준다합니다 다른 동물가트면 먹을것을 던저줄경우에 그것을 내버려두고 먹을것잇는쪽으로 달려갑니다만 코키리는 빼아슨것을 되빼앗길가보아서 한발로 꽉누르고서 먹을것을 먹는다합니다。코키리가 쥐를 무서워한다구요? 공연한 소리입니다。코키리방안으로 쥐가 얼마나드나든다고요 그래야 원체 적으니까 깜찍스러워서 문제도 삼지안는모양입니다。

◇

코키리다음에는 하마(河馬)가큰 동물이겟지요 입이 커—다라코 몸이 몹시 기름저서 양돼지보다 더 동굴동굴하고 사지가퍽 짧습니다。그러니만큼 여간둔하지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해끼칠주변도 업습니다。해종일닷 잠자기와 물속에 드러가기、거름것기가 갑바서 디룩디룩하니까운동하는 일이업습니다。이동물은 아푸리카에서 나는것인데 창경원의것은 이십사오년전에 와서 그동안 새기도 만히 나엇습니다(꾹하낫식낫습니다)새기 여덜마리나키로는 듬은 일입이라하야 대판동물원주체인동물제(動物祭)에서 상사장까지바다 말하자면 창경원이 자랑할만한 명물이되어잇습니다 그동안 나은 색기들은 거이다 다른 동물원으로 보냇다합니다。다른 동물원으로 보낼때 이육중한 동물을 엇더케보내것는가 생각해보십시요。보통 큰 꾀짝을 짜야한는데이것이 자그마치 백원이나들고서울서 인천까지의 기차삭이 천원이나든다하니 엄청나지 안습니까 몸무게가 오륙백관 나간다하니 그러키도 하겟습니다。

◇

코키리는 하로먹는것이 잘조 삼관、발것、일곱뭉백몬메 감자나고구마를칠사관 집푸레기이관 소곰이홉 그런데 여름에는잡초대신 풀을 뜨더자그마치 십이관이나준다합니다

하마도 덩치가튼만큼 집량들지 안습니다。고구마나 감자이팔칠백몸메 비지 삼관 밀겻칠일관 마른풀이관 여름이면풀을 뜨더 팔관 고리고 소곰

◇

코키리의몸갑 칠천원、하마는오천원。귀하고 크니만치 상당을 합니다。

(사진—우의것은 입버린하마 사람이라도 삼킬듯합니다。아래는 코키리내외)

動物園主任佐見氏談을듯고

음식물의 소화되는시간

암만해도죽이속히되고

고기와기름진것은늣다

소화가 더디되는 물건과소화가 안되는 물건은 아조 다르건만 흔히 세상에서는 소화가 더디되는 것을가지고서 소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아 버리고 맙니다。즉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낙지가튼 종류는 소화가 더디되는것이오 곤약구와 가튼것은 참말로 소화가 안되는것인데 이 구분을 모르는분들은 두가지를 고만 혼동하고 잇습니다。소화가안되는 물건으로 말하오면 그중에 불소화될만한성분(成分)이 잇는까닭 아니겟습니다。소화가 더디되다고 해서 곳 불소화성분을 가젓다고 볼수야 업지 안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란 만흔경우 사실과 서로틀리게됩니다。이것도 그 조흔예의 하나외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를통과하는데는 일러서 한시간반 느저서 여섯시간이 걸립니다。그 물론 음식의 종류를 딸아서 더되도 되고 일즉도 됩니다。

◇물이나 대린차는 한시간상분 껍질벗긴 능금이나 포도나 힌죽은 한시간사십분

◇우유、무、싱검치、복사、배、버리밭은두시간

◇떡、고구마、우방자、다시마른은 두시간삼십분

◇우동、무말랭이、카스테라、찐쇠고기은 두시간사십분

◇감자、곤약、비스켓트、찐닭의고기、죽순、생복등은세시간삼오분

◇조개、찐새오등은 세시간사십오분

◇고기 구은것、뱀장어등은 네시간십오분이다

이상은 물론 건강한사람을 표준한것이어니와 다시 그 성분으로 보면

◇수분이제일빠르고

◇함수탄소가 그다음、당백질이 그다음

◇질방질이 제일늣다。

그러나 아모리 소화에 제일더된 질방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불소화물은 아닙니다。불소화물은 학술상용어로 만난、이누린가라튼과가티 소화산소(消化酸素)로서 용이하게 용해되지안는 성분이 들어야만 그야말로 불소화물이 됩니다。

가을화장과레몬

얼골에바르고먹기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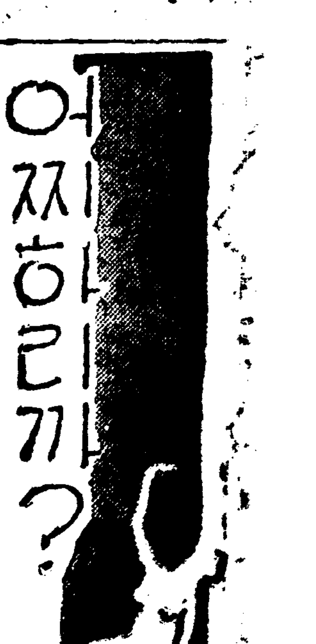
살결조와지고소화잘된다

무엇이든지 물건을 쓸때에 연구만 잘한다면 여러가지로 유효하게 쓸수가잇습니다。가령 한개의 『레몬』을 과실로서 먹을수도잇고 화장품으로서 쓸수도 잇는것입니다。

먼저 『레몬』의 아래우를 너대문듯게로 베혀내고 알젓은 열게가르다지로 베입니다。이것을 그릇에담고 힌사탕을처서 멀허두면 사탕은 『레몬』과즙에도 배여드러서『레몬』과과가 루명한 물이생겨납니다。이물은 음료수로 먹어도 맛이울등하지마는 이물은또한 살결을곱게하고 변헤끄은것을낫게하는 화장수도되는것입니다。그러나 번번이『레몬』을 새로사다가 쓰려면 불경제도되고하나 액진(液汁)을만드러노코 쓰면 상당이오래겹녀도 맛도변하지안코 『레몬』의 질과 살을다 함괴쓸수가잇습니다。

화장용으로쓰는 액진은 잘할때쓰는 그릇에 담어노코 먼저 베혀 노앗든 『레몬』아래우 따지에다가 그물을 못처서 낫한중간에서부터 것중로 향해서 둥근문의를 그리듯이 몹게마찰하고나서 맑은물로 살작씻고를고을 닥근뒤에 화장수를 발으고 분을발려서 엷문화장을합니다 그러고 볏헤끈것이 낫기까지는 눈문벗치진한 살빗가든 물분을 발으는것이 조흡니다 가을햇살은 상당히 강렬한것인때문에 여름과가티 낫치끄을기 쉬운것인즉 외출하실때는 열문화장을 한우에다가 빼니싱크림 열게바르고 백분을 칠한뒤에 다시화장수를 발으면 화장이 문허지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로 쓰는『레몬』은 홍차에다가『레몬』액집을 약간넛코 사탕에 저러든『레몬』한조각을 띄워서 마시면 풍미가 아조절가합니다 또그액집에다가 사탕을 타가지고 더운물에 부어서 식후에 숭늉대신으로 마시면 소화가 잘되고 혈액순환이 조흡니다。



사모하는사람은 형과결혼할모양

問 저는금년 二十三세의미혼녀자로 모의학전문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저와한동리에사는S라는 남자를 혼자사모하고잇습니다。그남자와는 한동리에살어서 서로얼골도알고 인사도알기는하나 아직도 말을해보지 안흠으로 제가마음속으로는 그녀자를이다지도 간절하게그리면서 이속사정을 알녀주지는 못하엿습니다。때로는 그녀자에게 편지라도해서 이사모하는 심정을 고백해볼까도 하엿스나 참아 편지도못하고 속으로만쩍 사랑을하고잇섯습니다。그런데 저의형님은 모제대를 졸업하고 아직결혼을하지 안흠으로 저의형님과 S라는녀자의 어머니들이 잘아시기때문에 S와 부모도 조타고들 하시고 후에 저의형님도S와교제는업스나 한동리에살어서 잘아는만큼 매우깃버합니다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제가 그러케 사모하고 사랑하는 녀자 에게 말도 못해보고 형수로서 마저서 하진안에 살수는 도저히엄슬뜻합니다。그러니 지금의 제사정을 부모와형님께 고백하여서 S와형님과의 약혼을 파하게하고 저와결혼하도록하여볼가요?그러치안흐면 모든것을 다이저버리고 멀리 도망을가서 평소에조회하는 의회이나 공부를 하여가지고 다서는 집으로 도라오지안코 거기서 일생을마칠까요? 고명한하교를 하여주시옵소서 (京城 一靑年)

형님에게 양보함이조켓소

답 대체로 지금당신이번민하는것은 첫재당신의 성격이 약한데서 유래한것입니다。그리고 그때문에 문제의해결은 좀시끄가는진탁함다。만약 당신의과가티 그녀자가 그러케 훌륭하고 또한당신이그녀자를 그러케 사모하엿다면 왜전으로나 간접으로나당신이 정당하게 당신의 요구를 말하여야 할것이엿습니다。그러나 사제이 이러케 되고보니 그해결은 방책으로서 가장 원만한방법은 당신의 심정을 당신의부모와 형님에게 잘 이야기해서 형님께서 양보해 주도록하고 그녀자의 의견도 드러보아야 할것입니다 당신이 아모리속으로 그녀자를 사랑하엿다고 하드래도 그것은 아모도모른는일이고 당신의 형님과 그녀자와는 벌서혼담까지 잇스니 당신이 그녀자에게 대해서 한층의 절대적 권리가업습니다 만약 그러케헤보아서 다해이모다 양해를 해주면 결혼하는것이고 그러치안흐면 완전히단념할수밧게 업습니다 당신의 형님도 그녀자를 소원하엿다니 귀찮은 것이랏스면 당신보다는 형님의 의견이 매우수다합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그녀자의 의견을따를것이 도한 정당한일입니다 동일로 공부를 하러 가는것은 조흐되이나 S라는 녀자와 결혼을 못한다고 일평생을 만리타국에가서 혼자지나겟다는 생각을 하는것은 넘우나 경솔한생각일것같습니다 가령S와 결혼을못하드래도 시간이 오래지나면 그녀한가슴의 상처는 나어가는것입니다 당신은 청신하고 활활한생각을 가저야겟습니다 (一記者)

家庭醫學

대머리되는병

問 저는삼십세청년입니다 그런데 륙년전부터 두발이빠지며 엽방으로는 나옵니다 엇던리발소에서 리발한후부터 그러하외다 빠지는양이만코 조와나오는것이 적습니다 이것이 무삼병입니까 그리고 무슨약을써야낫겟습니가 머리깜을때에는 꿈찍하게빠집니다 (一讀者)

◇

생은금년 이십일세의 미혼남자로써 약일년전부터 머리털이빠지고는 다시나지안습니다 전문의에치료를 바드면 다시나겟습니까? 모생수가튼것은 효과가 잇습는지요 치료법을 가르켜주십시요 (시내일독자)

답 원형독두병(圓形禿頭病)입니다 리발할재 전염한것인지혹은 다른원인으로 그러한것인지를판단한후에 그원인에 따라서 치료하여야합니다 그러나엇더한원인으로 발생한독두병이든지치료한다음에 머리털이 새로나게함에는 다음과가튼약이나 인공태양등(人工太陽燈)을 쏘이는것이 유효합니다 모생수도 조흡니다

石炭酸 一·〇
사리칠酸 二·〇〇
치오놀 一·〇〇
黃色와세린 一六·〇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소변이자주마렵소

問 이십이세남자인대 수일전 목욕탕에갓슬때 찬물로국부를씨슨후로부터 하복부가기분이좃치 못하며 소변이자주마렵고 분량이적으며 일상오좀이는것가틉니다 절대로매독이나 림질에는관계업습니다 무삼병일까요 (서울생)

답 국부를 차게한고로 방광염(膀胱炎)을 이르킨것갓습니다 목욕탕물로도 낫분병이 전염될수잇스나 성병되자 더욱히 남자에는 전염되는염려가 적습니다 하복부를 더웁게 회로(灰爐)를 놋케하고 좌기처방을·복용하야 보십시요

우방우물지藥水(八、○) 一〇〇〇
硼酸水 四·○
右一日量三回食前服用一週日連服(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전염병예방 약방문

찬바람이 불어도 장질부사는 끄치지 안코 여전히 만연되야갑니다 물론 양약으로는 예방약도 잇고 예방주사도 잇스나 궁향벽지에서는 그런약을 어더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硏究會)에서는 이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한약으로는 예방약이 업슬까하고연구하얏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가튼 약방문을 하나맨들어 내어 가지고 일반에게 선전하기로 되얏다고 합니다

防疫正氣散

(방역정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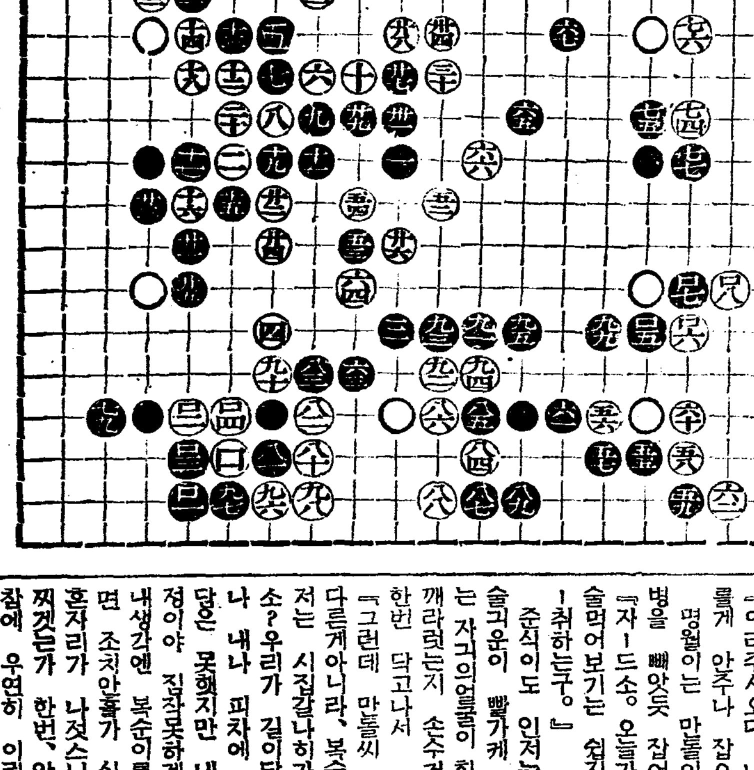
蒼朮(창출) 二匁
香附子(향부자)
蘇葉(소엽)各一匁半
半夏(반하)
陳皮(진피)
厚朴(후박)
藿香(곽향)
甘草(감초) 各一匁
생강세쪽、대조두개

이약은 어른 한사람이 먹을분량으로 매일 잡자기전에 먹습니다。한세첩쯤 먹으면 조합니다

圍碁對局譜 —7—

(本社主催)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九三】壬의十四
【○九四】辛의十五
【●九五】庚의十四
【○九六】寅의十八
【●九七】卯의十八
【○九八】丑의十六
【●九九】戊의十四
【○一〇〇】卯의十七
【●一〇一】辰의十八
【○一〇二】辰의十六
【●一〇三】辰의十七
【○一〇四】卯의十六
【●一〇五】丁의十四
【○一〇六】丙의十四
【●一〇七】丙의十三
【○一〇八】乙의十三

◆蔡極文氏評

黑이 癸의十六白將包圍心으로 庚壬十四에 外勢策을 建設하다가 白이 寅의 十八로 除하니 黑이 己의 十四斷處잇스믈 顧慮하야 卯의 十七로 黑二路를 擇取하니 白의로 不得不應이라 白이 黑의 不及機會를 利用하야 中央貫通勢力은 便同金城이로다 黑의 進展策은 要在何處인지 小使一覽할지어다

短篇小說 福順이 (7)

宋影 作
熊超 畫

『자、홀씨 한잔 먼저 드시만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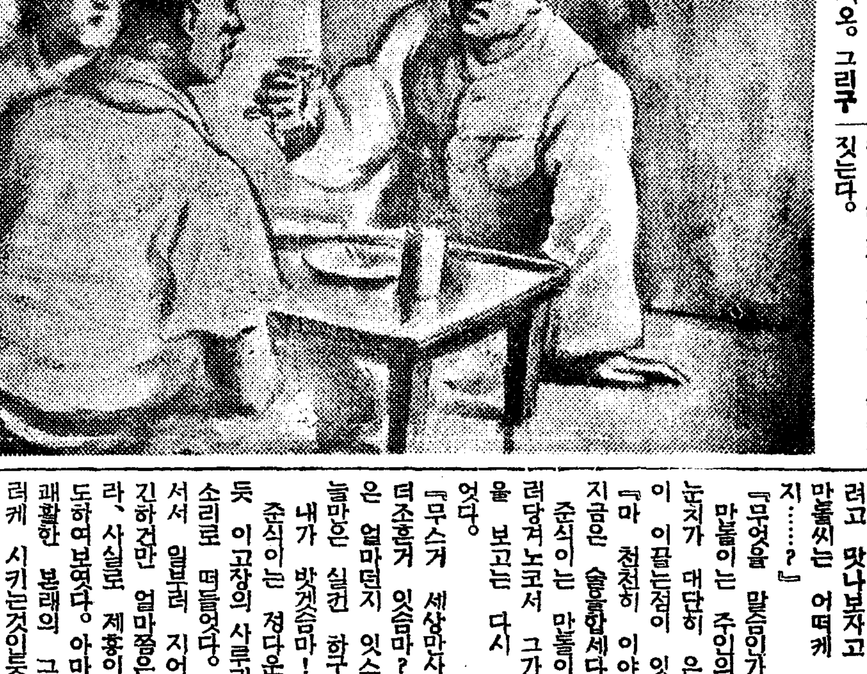
하고 준식이의 내미는 잔이 만돌이의 코압헤 가까히 온것을 만돌이는 사양하지안코 바더서 또 덜컥 목구녕으로 털어너헛다。무슨일로 술을 공덤지듯이 빨리 입속으로 처넛는지 그것은 전혀 만돌이의 고유한 버릇이엇다。

『자、또 한잔 하시오。그리구 술은 겨우 여섯병을 두사람이서 먹고 취하셧소?』

명월이도 두눈다구니에 다홍칠을 해가지고 한축 거든다。

『허ㅡ、술도 긔운이 조화야만히 마시는게지、맥업시 되면 오장도 따러서 약해저서 술량이 주는게라오。』

만돌이는 의미심장한듯 이러케 말하고는 제풀로 긴한숨을 짓는다。



『그래서야 술이 늘 때ㅅ오?점점주량이 주려갈뿐이지오。』

『그러치오!작년보다도 달꾀!지난달보다도 달꾀!이러다가진정 밥보다도 조화하는 술을마음것 먹어보지못하고 죽을것만갓쇠다그려!』

『허허허!과연 진정의 말슴이오!그러기에 사람이란 무슨짓을 해서든지 잘 먹구 잘닙구편안하게 살 궁리를 해야하지어룹어룹 하다간 큰 봉변한단다。영악해야지오!무슨 일이든지 돈생길 구녕이면 뚤려야지오!』

준식이의 말은 열을 띄워오기 시작햇다。만돌이는 지당한말이라는듯 감심하는 표정이엇다。

『그런데 내 조용히 만돌씨를좀 맛나자 한것은 다소간 만돌씨를 생각해서 궁리한 일이잇기때문에 거기대해서 의논할려고 맛나보자고 한것이지오…만돌씨는 어떠케 생각 하시는지……?』

『무엇을 말슴인가요?』

만돌이는 주인의 이야기하는눈치가 대단히 은근한데 저욱이 이끌는점이 잇서보인다。

『마 천천히 이야기하고 우선지금은 술들합세다。』

준식이는 만돌이를 조금 끄러당겨 노코서 그가궁굼해하는것을 보고는 다시 말끗을 돌리엇다。

『무스거 세상만사중에 술보다더조혼거 잇슴마? 내집에 술은 얼마던지 잇스니 입자 오늘만은 실컷 하구료。술갑시내가 밧겟슴마! 하하하。』

준식이는 정다운 친구를대한듯 이고장의 사투리를써가며 큰소리로 떠들엇다。무슨까닭이잇서서 일부러 지어하는 태도이긴하건만 얼마쯤은、아닌게아니라、사실로 제홍이 생긴것갓기도하여보엿다。아마 능갈스럽고 괘활한 본래의 그의성격이 그러케 시키는것인듯십다。

만돌이는 제 술소리가 제귀에 거칠게 들리는것을 알면서 인저는 이이상 더먹으면 정신을노흘정도인줄도 느끼면서、그러하건만 명월이가 가까히 입에갓다 대주는 술잔을바더서 마시지안흘만한 용긔가 업섯다。무스거!이만술이야 못먹을 택시잇나!이이상 먹고도 까대업섯든데……술한테 저본 만돌이가아니다!이따위 허장성세하고십흔 헛긔운이 그의 가슴속에서 용소슴하는것이엇다。

『나만 자꾸 먹쇠다!주인도자ㅣ한잔하시오그레』명월이 한잔하소。』

그는 술병을 들고 두군대노힌 잔에다 술을따르면서 병을쥔 손을 가만히 가지고잇지못하고 좌우로 흔들엇다。그럿치음에 술은 절반은 잔박그로업질러젓다。술상은 거지반 뷘병으로 가득해지고 그중에는 상우에 쓰러진 병도 적지안헛다

『이리주시오다。내가 술을 따르게 안주나 잡으시오그레。』

명월이는 만돌이의 손에서술병을 빼앗듯 잡어다렷다。

『자ㅡ드소。오늘가티 상쾌하게술먹어보기는 쉽지안흔데……에ㅣ취하는구。』

준식이도 인저는 이마빡까지술긔운이 빨가케 올려왓다。그는 자긔의얼골이 화끈거리는것을깨라려는지 손수건으로 열굴을한번 닥고나서

『그런데 만돌씨 내말들엇소。다른게아니라、복순이 나히가인저는 시집갈나히가 되지안핫겟소?우리가 길이달븐니까 입자나 내나 피차에 자주맛나서 정답은 못해지만 내가 임자의사정이야 짐작못하겟소? 그래서내생각엔 복순이를 날래 치우면 조치안흘가 실흔데、마침조흔자리가 나젓스니 임자가 어찌겟는가 한번 알어볼려고하든참에 우연히 이러케 맛낫스니말이오……복순이를 내게 맥기지안켓소?』

하고 만돌이의긔색을 살피는것이엇다。

五日 (木曜)

◇午後六時 連續라디오어린이小說 꼿동산의少年團(二) 모올나ㅡ르作 朴泰遠譯 朴泰遠
◇同六時二五分 衛生講話 性病豫防 淸行 高永珣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 新平 映畫에對하야(一) 金玉鉉
◇同八時 映畫劇 銀河에흐르는情熱 安鍾和原作 李雲芳脚色 라듸오푸레이、미ㅡ평
演出 朴泰 / 效果 金照 / 配役
白淳英(學生)……徐月影
白貞媛(淳英의누이동생)(女學生)……姜石燕
白氏(淳英의하라버지)……朴齊行
陳傑(淳英의親友·貞媛의戀人)(學生)……金照
鐵洙(淳英의親友)(畫家·學生)……尹星畝
張燕淑(淳英의戀人)(學生)……金仙草
張氏(燕淑의父)(金融社社長)……李素然
蓮鄕(燕淑의繼母)……朴仁淑
金仁錫(張氏의信任밧는社員)……尹東洙
仁順(貞媛의동무)(女學生)……金蓮實
玉鄕(貞媛의동무)(女學生)……朴今順
下女……申時雨
解說 卜惠淑
◇同九時〇分 音律

六日 (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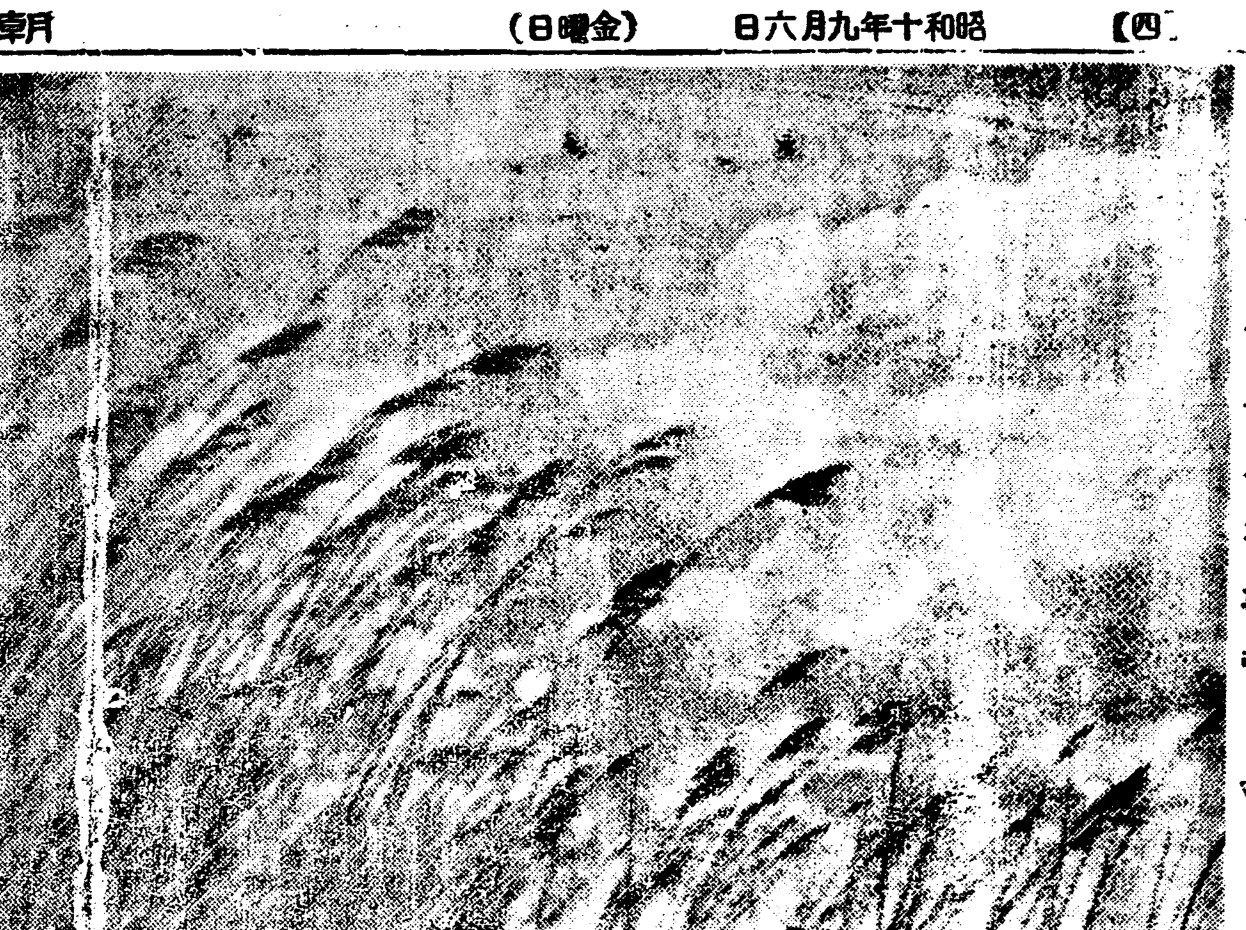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古談 三官服 愼麟範
◇同一時 家庭講座 손님接待하는法(二) 宋今璇
◇同六時 하ㅡ모니카二重奏 一、勇敢한水兵 二、人力車 三、天然의美 四、大湖船 五、동호세 六、軍隊行進曲 第一하모니카 崔英植 第二〃 全春源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秋花栽培法(一) 金令淵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 趙平 獎勵에對하야(二) 評講 金玉鉉
◇同八時(東) 피아노獨奏 一、奏鳴曲 E長調모자르트作曲 二、演奏會用練習曲 F短調 리스트作曲 三、자장가 쇼팡作曲 澤崎秋子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 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 趙鶴鳳 鼓手 丁元燮
◇九時 映畫이야기 로미오와쥬엣트 成東鎬

七日 (土曜)

◇午後〇時五分(大) 吹奏樂 一、歌劇『탄호이자』의行進曲…빠그너作曲 二、亞細亞組曲포로리…레이세編 大阪市音樂隊 指揮 林直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獨唱 一、여름밤삼보(高) 二、제비형제(同) 三、섬넛다불낫다(全) 四、오막사리(宋) 五、라듸오는조흔집(同) 六、고초(全) 七、잭크잭크(同) 全明姬 宋東先 高天命 伴奏 安玄雲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二〇分 라듸오學校 秋花栽培法(二) 金令淵
◇同七時三〇 時事解說 高義駿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 한愛人 쉰전어삐原作 柳致眞翻案 …全一幕…(配役) 妻 … 그의妻…林芝惠 그의딸…金福順 尹영감…孟晩植 奏者…宋在魯 劇藝術硏究會 指揮 柳致眞 效果 效果班
◇同八時四〇分 秋風感別曲 一、秋風感別曲 二、寧邊歌 三、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三數大葉 三、言樂 四、編樂 五、編 孔明家 柳開東 白牧丹 四、노래가락 洋琴 金相淳 大笒 安寧李德俊 伴 金永根 杖鼓 金一宇 金雨塘

曆

九月六日 (金)
舊八月建乙酉(大)初九日
乙酉·水·婁·除
●安葬에宜함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二十七日)



가을의휫파람

夏天星象

莊麗한大熊星座

姜邯贊과落星傳說 (8)

安在鴻

× 泰西의 天文學에서는 北斗星이 大熊星座의 一部로 되엇나니 그에 包括되는 뭇별을 다말함을 要한다

北斗 의 밋바닥에 뒤로 向하야 三四等의 여섯별이 踏鐙形으로 늘어선者 잇스니 即 文昌星이라 이사이 北岳위의 烟霧가 半天을 가리어 언뜻보이지 안하나 一月頃부터는 中天에 노피 보이는者이다 參宿를『삼태星』이라하니 그랍이 흩파나르는『삼태』와 비슷한 까닭이든지 혹은 그허리의 세별을 三台星으로 잘못 알엇든지 알길 업스나 天文學上의『三台』는 上台 中台 下台의 總稱이오 北斗의 아래(低)下로 大熊頭과의 中間에 건너어잇스니 北斗 文昌 밋上台까지를 아울러 北天에 옹두선는

雄偉 한『큰곰』으로된 것이다 即 文昌星은 前胸部이오 北斗七星은 옹덩이와 꼬리로 되것이다 三台는뒤로밑고 文昌은 史記天官書에『斗魁 戴匡六星은 曰文昌宮』이라고하고『文者는 精所聚오 昌者는 揚天紀니 輔拂並居하야 以成天象』이라고하야 별로서의 價値의 巨大함을보엿고 後世에 더욱 術家的 敷演을 加하야『天之六府ㅣ니 主集計天道』라고하야 마치 文武各材를 모흔 內閣値의 審議局이라도 됨과가티 解說하엿슴은 北斗와 그것과 아울러

地上 의 現實을 天界에다 차렷슴이 그 天象意識 發生過程으로보아 與味잇다

一月頃의 저녁에보면 文昌星部에서 버러대는 두눈을 뜨고 三台 中部에 네발을 버티여 北斗의자루로 뻬뻬한 꼬리를 빼치어온 우람스럽고도 아양스러운듯한 큰곰의 귀여움이 泰西天文學의 新話를 깨닷게한다 七星은 또 周代의 解釋이 잇나니 每年每月何寸을 일지안는다는 독한사람의

勤務 처럼 제자위를 뜨지안코 定規的인 科學上으로도天界의 奇觀이오(明國參照)일숙은 大神『쥬피터』의 龍愛로되엇든 美人인 海神『카리스토』의 幻身이라고해서 北極星인 小熊星座와 함께 一篇의 說話가잇다 高麗史 姜邯贊傳에 그篇尾에서『世傳 使臣이 밤에始興郡에 갓다가큰 별이 뉘집에 떠러짐을보고 아전을 보내어 보고오게 하엿더니 마침 그집 마누라가 사나이를 나흐지라 데려다가 길럿더니 그가 곳

邯贊 이 되엇더라 밋 그가 경숭이 되어저서 宋使가 와서 보고 拜하며 文曲星이 오래아니보이더니 이제 여긔 잇다』고 하엿다고 하야 上述諸說을 合치 文曲은 一名天伐로써『主天伐、伐叛逆』하는것이니 契丹의 四十萬의侵入軍을 擊破한 姜太師의 一生에 비추어 理論上으로 꼭 들어맛는다 지금 始興郡東面 冠岳山下에는 姜太師의 옛터로 落星垈의 石塔이 남어잇는 바이니 姜太師의 矮少함은 그四零星인 文曲입에 因함이냐? 또한번 우슴입이다 大星이 떨어지자

漢相 이 歸天이라 가 諸葛亮이 落星과 함께돌어갓다 하고 宣祖戊戌十一月에 忠武公 李舜臣이 南海露梁에서 戰歿하게될새 明都督陳璘이『河魁星이 떨어지려함을 근심하야『吾ㅣ夜觀乾象하고 諸察人事컨대 東方將星이 將病矣ㅣ오 公之禍ㅣ 不遠矣ㅣ라 公은豈不知耶아? 何不用武侯之 禳法乎아?』하는 勸誘書를 보낸든것이다 별이내려 巨人으로 태여도나고 흔별이떨어져서

巨人 이 도라가게되고 도하니 그럴이나? 이는 現代科學自然科學의 영이라 人生과天體와의 心理上의 關係로도 매우 重要한 을 이에서 볼 수 잇겟다

× 北斗의또한(몸)이 數千年來 東西의天文學에 반뚯하야 變함이업스나 第十八世紀(米國)의 固有運動의 研究가 進步함을따어 北斗의별과별이 서로서로 어떠한宿命을가젓는가?를 闡明하게 되바이니 일곱의별이 永遠히協同의길을 가는것이 아니오 첫재와맨끗의 두별과 다른다섯별과는각각그

反對 方面으로 달어나고 잇는 것이다 桑田碧海가 몃번이나밧고임은 보앗다는 麻姑할미는 흑北斗의몰이차례로 變해짐을 보앗든가? 麻姑는워낙차져를엇슬스되 今後十萬이나지나면 北斗의 반듯한 맵시도 적지안케 결그러지리라고한다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③ 朴致祐

初期新興市民層은 舊勢力 中世的封建의 不自然한 抑壓으로부터 自身(市民人으로서의自身)을 完全히 解放식히기 위하여서는 이難業을 遂行할 굿세고도 새로운人間타입의 創造가 무엇보다도 必要하엿든것이니 이러한 人間타입의 創造라는

市 民人의要求에 應하기爲하야 動員된 觀念力이 곳 當時로보면 가장 進步的인 知識人의 그것이엿든것이며、이러한知識人의 運動의 總括的命名이 다름아닌『루넷산스』바로 그것인것이다。이리하야 文藝、政治、自然科學、宗敎等 왼갓文化部門에 漸次로 猛烈한 氣勢로 이運動이 퍼젓든것은 世人이 周知하는바이나 이러한各部門이 얼른보면 相互無關한듯이 보이면서도 市民的인 人間의타입의 創造라는點에서는 完全히 一致되엿든것이다。그러나 모-든創造가 本來그러한것과가티『無』에

突 然히 튀여나올수는업는것이니 여기서 그들은 이러한타입의 先例를 歷史에서 찻 — 自然그들과親한 歷史에서 찻게되엿든것이며 이幸運의 제비에 뽑힌者가 곳 自由롭고 明朗한 저 古希臘人이엿든것이다。따라서實用的『希臘에로!』라는 當時의 標語는 반듯이 必要하엿든것은 아닐것이오 設使『羅典에로!』라든지『檀君에로!』라고해도 本質的意味에서는 全然無關하엿슬 것이다。그들의 참된意圖는 — 設使 無意識的이엿다 치드래도 다만 中世的體制에 對하야 百『퍼센트』의 反感과 憎惡를 가짐과 同時에 市民人을 爲하야 이러한 體制를 破壞함에 充分한『힘』을가진 그러한『타입』의 人間이면 그만이엿든것이다 結局

新 興市民層의本來的인『要求』에 應할수잇는『타입』이면 그만이엿다는말이다 이러케봄으로서만 우리는 市民解放運動으로서의『루넷산스』라는 한개의 文化運動을 그의 歷史的 社會的性格에서 完全히 把握할수잇슴과同時에 그들의 所謂『希臘에로!』라는 標語는 單純히 한개의『슬로-강』에不過한 藝術的意味以外의 아모러한 意味도 가짐이 업다는事實을 밝히 알수잇는것이다 古代에로! 뒤에로! 라고웨치면서 그들은 그들自身의손으로 지여진 蒸氣船과 火車에몸을 실은채 곳칠업시 압흐로 압흐로 다름질치고 잇섯든것이다。復興은 復歸가아니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루넷산스』를『復歸로서의發見』이란 意味에서 使用함이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를 알어야한다。大體로

歷 史에로의關心、古代에로의關心、古典探究가 한개의 社會的運動과 結托되는限 그곳에는 언제나 적든크든 조튼 납브든 이러한 三百六十度의『뮤토스』的轉回이 생겨지는法이다 歷史에對한限『復興』은『出發』이고『復歸』는『前進』이기때문이다 歷史에對한 關心、古典探究熱이 猛烈히 이러나는 오늘 우리는 그것이『웨』를 묻기前에 적어도요만한 視力만이래도 미리가초아둘必要가 잇지안홀까。—『正』과『否』의『가틸』은二次的인問題라치드래도。

以上으로 나는『루넷산스』는 人間을 發見햇다。』라는 普通無批判的으로 使用하는 命題를 歷史的 現實에비추면서 分析해본結果 다음과가튼 事實을알수잇섯든것이다。即、『루넷산스』는 人間을

發 見하엿다고는하나 거기서 發見된人間은 첫재로『純粹人間』도아니고 둘재로古希臘的인 人間도아니고 徹頭徹尾『市民的』인 人間이엇다는點을 알수 잇섯든것이다。이 分析은 極히重要한것이니 내가以上에서 이러케 支離하리만치 分析해온 것은 決코好事的意味에서 한것이아니라 實로 實踐的意義를 밝히기爲하여서한것이다。

近者 새로운『루넷산스』란 美名下에 새로운 人間을맛치『自我의完成』또는『個性에로의 沈潛』에서나 차즐듯이 忘想하는 남어지『純粹自我의 發掘』에만 餘念업는一部의 哲學徒及文學人을우리는 만히 보게되는것이나 새로운『루넷산스』를 이가티 純粹自我의 發掘에서밧게 찻지못하는限 그들의 所謂人間探究、自我發見은

時 間과 人間을 超越한『純粹人間』의 發見에 끄칠따름일것이다。如何한 自覺도 個性의深刻한 反省을 通해서만 可能할것은 勿論이나 그러나反省이 곳個性에로의 沈潛、耽溺 逃避에서는 아니되는것이다。이러한態度는『첫재로』『自覺』이란말의참뜻 — 即 歷史的社會的『情況』에處해잇는 自身의『位置』를 똑바로 봄으로말미암아 自身의 歷史的 社會的使命을 깨달는다는 참뜻을 忘却한結果 새로운 人間을 發見함에 完全히失敗하고 잇다는點에서 —(둘재로)過去가 經驗한 市民解放運動으로서의『루넷산스』와現代가 밟버야할 全然異質的인 새로운『루넷산스』와의 重大한差異를故意로 抹殺하여버리게되다는 點에서 實로 커다란 誤謬를 犯하고잇는것이다。大體 人間發見이라는말을 純粹人間을 發見한다는 意味로 밧게는

解 釋못하는限、이러한者들에게 過去의『루넷산스』와 오늘의 그것과의 質的差異 即、辯證法的質的對立이 理解될 理萬無하닌가!『發見』이가진바 歷史的 社會的性格의 以上과가티 究明을 가지지도前에 그저 떠벗고『루넷산스』를 부르짓기만 하는일은 적어도 삼갈일이라고 생각한다。

漢字의研究

六書에對한說明 (五)

洪起文

그러나 音義의 研究方法을말하려면 自然히 漢字組織의 說明을 前提치 아니치 못한다。多少의 煩瑣로움을 不顧하고나 뭇을 돌리어 暫間人동안그 說明을 도모하겟다。그런데 漢字組織에는 여섯가지의 原則이 잇다。그것이 이른바 六書다

一、象形。直接 그 물건의 形狀을 그리어 노흔것이니 山川魚鳥等의 글시자가 모다거긔屬한다。오늘날의 山川魚鳥로서는 그 물건의 形狀과똥 떨어지지만 녯날은 그形狀의 그림으로 構成되엿든것이다。

二、指事。一定한 의사를 빌어서 그 事物을 가르치는것이니 一二丁凸等의 글자가모도 거긔屬한다。한劃을그어 하나、두劃을 그어 둘을 表示하고 또 그와가치 우로 내밀어 뾰족한듯 속으로 파서 옴욱한뜻을 表示하고 잇다。

三、會意。林字는 木字둘을 合한 것이요 信字는 人字와 言字를 合한 것이다。이와가치두 글짜를 合하야 한個의 새로운 뜻을 맨들어 나는 것이 會意다。

四、諧聲。九字와 鳥字를 合하야 鳩字를 이루고 魚字와 里字를 合하야 鯉字를 이룬다。이와가티 두 글짜를 合하야 한字로는 그 音을 보이고 다른한字로는 그 물건의 종류를 보이는 것이 諧聲이다。

五、轉注。轉注는 解釋이 一定치 안하서 或은 老考等字와 가티『耂』로서 늙은것다는 뜻을 表하야 노코 그 아래를 달리하야 同一한 뜻의 글자를 맨드는 것이라고도하고、또或은 金銀의 金을 金으로 쓰는것 가치 한글짜를 여러뜻으로부터 저런뜻으로 轉用하는 것이라고도 한다。說文序에는 前者의 말을 主張하얏스나 그런 例가 極히드물어 原則의 하나로까지 칠것이 못되니 아마 그보담은 後者의말이 더욱 近似치 안할까고 생각한다

六、假借。音이 가틈으로서아 모字나를 借用한 것이다。也字는 本來 陰門을 象形한것인데 그音으로 因하야 語助辭로까지 쓰이게 된것이다。

鄭樵文書略에는 글시자의 總數가 二萬四千二百三十五字인데 그中에서 指事가一百七字 그다음이 轉注 三百七十二字 또 그다음이 假借五百九十八字 또 그다음이 象形 六百八字 또그다음이 會意 七百四十字 諧聲이 二萬一千八百十로되야잇다。明의字彙는 本稿合하야 글시자의總數 四萬五千五百五十字 淸의 康熙字典은 本稿合하야 글자의總數 四萬七千二百十六字다 되는 터이족 六書의 比率이 다시 또 엇떠케 變動되는지는 모르되 大體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最少數가 指事요 最多數가 諧聲임에는 變함이 업슬듯하다。諧聲은 [illegible] 聲이라고 한다。그것은 種類가 表示되는 그部分을 音에 對해서 形이라고 하는것이다。그런데

形과聲 의位置關係는 어떠한가? 그位置는 다시 여섯가지의 形態로 區分할수 잇지 안한가?

一、右形左聲 鵝鴿等
二、左形右聲 江河等
三、上形下聲 芸芝等
四、下形上聲 婆娑等
五、外形內聲 闊閱等
六、內形外聲 衡街等

江과工 河와可 또는衡街과行이 서로 다른音이 아니나고 물으실는지 모르나 決코 그 諧聲을 오늘의音으로써는 符合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諧聲이以上 적어도 그글시자가 製作된 當時에잇서서는 同一한 音을 表하얏든것이라고 볼 수밧게 업다

作家·評家·讀者

(二)

金煥泰

그러나 그後로 簇生한『에피고-넹』들 더욱이 요사이 大活躍(?)들을 하는 自稱 프로評論家또는 傾向派 評論家에잇서서는 아모런 文學的 審美的 敎養도 訓練도、文學에對한

熱情 도 眞理에對한 探求慾도업시 그저 氣분만 部分的으로發動하고잇슴을 본다。

나의 이런말을 單只反動的言辭로돌릴 讀者가 잇슬는지도몰으겟스나、萬一그러케 生覺하시는분은 그들몃사람의 評文을一篇式이라도 아니 單몃줄식이라도 읽어주기바란다。그리하야 萬一 그들의말하랴는 뜻을理解할수가잇는분이 잇다면 나는그의압헤 帽子를벗겟스며 나의以上의 言辭를 撤回하기에 조곰도 躊躇하지안켓다。

不幸인지 多幸인지 나는 그 大部分의글을 몰은다。나는 그들의글에 내가

理解 할수 잇슬만큼 深大한 思想이 담겨잇는 까닭이나 안인가고、스스로 나의 無識을慨嘆하여도 보앗스나、高遠하고 深大한 思想은 아니아조 平凡하고常識的인 思索까지도 品詞가 서로 混用되고、格이서로 맛괴이며 한 術語가 內包하는 意味가 한文章中에서 實로 自由自在로 變用되는 그런文章으로는 表現할수업는 것이라는것을 알고 비로소 安心하엿다。

그리고는 더나아가 남이읽어 몰으는글이매 쓴自己도몰으리라는 結論에到達하야 그들의 이런글이 果然存在理由가 잇슬까고

疑心 하지 안이치못하엿다。그러나 머지안허 이런懷疑에서도 나는 完全히버서낫다。쓴 自身도몰을고 읽는讀者도 몰을진대 그런글은 업는것만 갓지 못하다。新聞雜誌의 貴重한紙面이 앗갑지안은가? 그리고 그런글에서 무슨深遠한思想이나 眞理를 차저내라고 머리를 싸고잇슬 그어느讀者들이 可憐하지안흔가?

이곳에『批評無用論』의擡頭한理論的根據가잇스며、存在理由가잇다고생각한다。李石薰氏가『批評無用論』을말한것은 全的으로 批評그것을 否定하라고한것이 안이라、眞正한

批評 의 出現을待望에서 이라』는뜻의말을한것은 아마이를일홈한것이다。이에우리는眞正한批評의 出現을爲하야 아모런 文學的敎養도、眞理에對한探求慾도 업는、그리고는 其之於는 形容詞、副詞도 區別못하는 그런群少評論家들을 積極的으로 排擊치안코면 안될時期가왓다。『그런群小似而非 評論家이면그 [illegible]』

作家 가잇다는것을 決코 잇고잇지는안흐렷다。

이제 批評을 一律的으로抹殺하라거나 또는 無條件하고 擁護하는사람들의 主張을 要約해보면 大略다음과가트리라

『나는 너히들批評家의 言說에 귀를 기울일 아모런 義務도 雅量도업다。너이들은 軍人못되사람이『스파이』되듯이 作家되기에 失敗하야 批評家가 되것이아니냐? 너히들은 너히들의 되지안흔 理論을 橫說竪說하기前에、그理論에 맛는 作品을 단한篇이라도 내어노하달라。그러차안홀진대 너히들의 理論은 나의

創作 過程에 잇서서 아모런도움도 되지못한다。도리혀 나의 神經과頭腦를 刺戟할뿐이니 제발緘口하야 나를便히쉬게하라』

데도 批評家는 默殺하던 그대로 自家하고말것이안이냐고 反問할런지도 모른다。우리文壇은 이러한批評家(及群衆群小 作家도勿論)를 爲하야는 가장

肥沃 한 土壤인지 紳士的이요 寬大한 放任과 또는 默殺로는 決코 엇 自滅도 自殺도 하지안흐니 엇지하랴?

以上에서 나는現朝鮮文壇에잇서서의『批評無用論』의 存在理由와 내가 그를支持하는 根據를 말하엿다。

그러나 또한 나는 그릇된批評을 排擊하기 爲해서『批評無用論』으로提唱 또는支持하는것이 안이라 一律的으로 批評그것을 抹殺하랴는 意圖下에서 그리하는 [illegible]

死와蜜柑

(詩)

로-드·던세이니 作
金珖燮 譯

얼골이 검은 두 靑年이 異域南方땅 엇던 飮食店 食卓에 한女子로 더부러 안고잇섯다。

女子의접시우에는 心臟에 惡의우슴이 든 조고만한 蜜柑하나가 노여잇섯다。

靑年은 둘 다 언제까지고 그女子를 바라보며 잇고십헛다。그들은 別로 먹지도안코 술만마시엇다。

女子는 두靑年에게 똑가치 微笑하엿다。

그러자 心臟에 우슴이든 그 조고만한蜜柑이 접시에서 떠러저서 장판우에서 둥글 굴럿다。

그검은靑年들은 어데갓는가 即時 차저보앗다。

食卓미테서 갑작이 얼골이 마주첫다。서로 얼핏 말하엿다。마음뒤에 그女子가

依支하여 안저잇서서 그들의 理性우에는 各各 恐怖와無能이 떠올럿다。蜜柑의 心臟은 우서다。

女子는 계속하야 微笑하고잇섯다『Tête-à-tête』에서 老人하고 密談하고잇던『死』가 그자리를 엿듣고 일어서 왓다。

註——『Tête-a-tête』(데이타데이트)란 單두사람이 마조안저 密談或은 情談하도록 맨든 一種의椅子이다。

米國의學生氣質

(5)

在加州 李定根

『스포-츠』를 背景으로하고 野望잇는 學生들의 活動을 보게되는것은 一般이 認識치못하는 慶事라고하겟습니다。그들은 將來 商業、企業會社의

支配 를 꿈꾸는 靑年들이웨다。大學의 大小에도 關係잇지마는 普通으로『스포-츠』를 爲하야 消費되는 金額이 萬餘弗乃至 數萬弗에 達하는데 온전히 學生의 手中에서 支配됨니다 未來의 商業家가되며 企業家가 되려는 靑年들이 實踐的練習을 競爭하는것은 奇觀이라고하겟습니다。

『亂暴』(Riots) 작난의 程度를 조곰지나가는 작난이라고 飜譯해스면조켓스나 너무길어서 亂暴이라고 하엿습니다。

米國大學生의 亂暴한 작난은 그程度를 넘어가는것이 흔치안은줄 암니다 그리고『칼네지뽀이』들의 작난이라면 조곰如何한點이잇다하더래도 一般으로못고

默許 하야 버립니다。學生時代에는 그런法이라고 諸賢하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亂暴한 行動이 엇던케 始作되는지는 누구나 모름니다。大槪로는 엇던學生이『자우리가 어대로 가서 엇던銅像을 밀어넘그자!或은 銅像에뻘건칠을하자!』하는때에는 다른學生들은 한갓誤樂으로 이러無條件同意함니다 얼마되지안어그 銅像은 넘어젓거나 새옷을 입엇거나 합니다 이러케 되엿다는것뿐으로 別理由가업슴니다。

或時는『但이』들이 몃지모혀서 活動寫眞館을 들이부신다던지 야료를 논다던지합세다。이런작난中에 恒常相當한

理由 가 따릅니다。理由는 活動寫眞이 낫부다는것이웨다。

或時는 다른大學과 蹴球競爭에 優勝하엿다고합세다。이런때에는 [illegible] 라오드로 밀며내려가 끝기꿀을 할아가거나 꺼거갑니다。그리케 해야할 理由는 업습니다。그의 優勝이 興奮된 작난이라고하겟슴니다。

亂暴은 이와가튼것들로 작난한뒤에는 彼此에 웃는데 끈치며 그리고 一時的이야기꺼리가 여서 學生生活의 氣分을 愉快케하는데 끈치는것뿐이외다

以上에記錄한것들이 大學生活을가장

愉快 하게만든다고 하겟슴니다 勿論以上外에도 行事가 적지안치마는 米國大學生들은 以上에記錄한 몃가지로 더욱 그 生活을愉快케한다고 하겟습니다 엇저나 大學生活은 一生을通하야 가장幸福된 時代라고하겟슴니다。

步行萬歲

뷔일博士所論

【뉴-아-크『뉴저지-州』發合衆通信】米國뉴저지-州『뉴-아-크』의『윌리암·뷔일』博士라고 하면 有名한『프린스톤』大學第三回의卒業生으로서는 最年長의生存者인데 最近九十回의誕辰을마지해서 現代의『스피-드』時代를痛罵 다음과가튼警世的인말을 하엿다。

現代에잇서서는 모든中心的能率이라고하는데두고 사람은勞働하지안코 多大한效果를期待하여서 사람과사람 場所와場所와의連絡交通에는 무엇보담도 機械에依한『스피-드』를 라는것이 重視되는 一方 人間은漸漸 安逸을 貪하게되다。人間도 여고에依해서 엇든 모든 意味의 餘裕를 利用하고 努力하면조호나 이것도 하지안코 自己의 몸을쓸수잇는대로 쓰지안코려고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人類退步의 第一步인것으로서 懶惰한 人間이 만흐면 만흘사록 人類의將來는 危險하다。活動하는 生物의 勞働하지안는 器官이 退步하고 自然消滅한다는것은人間그自身에 對해서도 할수잇다。人間일지라도 生物學의法則의 例外라고는할수업다。이러한 意味에서 老少男女를勿論하고 人間은 每日約二時間의 散步를하는 習慣을 가질 必要가잇다。거름을 것는것은 現代人에잇서서 가장 조흔自己保全法이고 健康增進法이다 人間을 懶惰退步로부터 救濟하는데 가장 조흔方法이다 이라고한것은傾聽할만한말이다。

開催日時

九月二十一日公開決選
◇九月十九日 一次豫選
◇九月二十日 二次豫選

本社大講堂에서

第一回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審査員
『피아노部』金永煥、朴慶浩
『바이올린部』洪蘭波、桂貞植
『聲樂部』玄濟明、金文輔

콩쿨樂譜集 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新刊紹介

▲新人間▲ 九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文敎의朝鮮 九月號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發行 定價三十錢

▲朝鮮예수敎長老會第二十四回總會錄 [illegible]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發行 定價二圓

黑風

韓龍雲 作
金熊 挿畵

【121】

해후(邂逅) 6

『저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상해귀선회사 배인대 그회사는 정부의 보조를 밧느니만치 정부의 양해를 어더가지고 항해할때에는 림시로 경비순양함으로 가장(假裝)하야서 바다호걸들에게 위해를 밧지안토록 하는것이대 다른나라의 항구에 드러갈때에는 가장한것을 고처서 도로 상선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배는 언제든지 그리하는것이 아니라 중요한 화물을 실은때에만 그리하는것입니다 제가 상해에서 떠날때에 재정부(財政部)에 잇는 저의친척에게 드르니까 정부에서 은괴(銀塊) 삼백만냥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드럿습니다 그러한 중요한것은 반듯이 저배에 실는것입니다 저배는 그것을 실고서 경비순양함으로 가장한것입니다

『저의 옵바가 저배의 기수(技手)로 여러해를 다녓스므로저배의 내용은 모르는것이 업습니다 저의옵바는 가장에대한 책임자로 잇섯습니다 그리하다가저배의선장을대장님은 저배를 경비순양함으로 아시고항장이라고 하섯지마는항장이아니라선장입니다 그런데 그선장놈이 한번 옵바의 소개로 저와 면회한일이 잇는대 저를 한번 본 뒤로 불칙한 욕심을 내어서 저를 셋재첩으로 달나고 저의 옵바에게 여러번 간청하얏스나 옵바는 듯지 아니하얏습니다 그리하야 선장놈은 저의옵바만 업스면 저를 마음대로 다려갈줄로 생각하고 밧중의 고요한때에 선장놈이 저옵바를 갑판으로 불너내어 최후로 말을 하다가 듯지아니하니까 발길로 차서 저의옵바를 바다에 떠르트려 죽엿습니다 그리하고 잘못하야 떠려저 죽엇다고 발표하얏습니다 선원들도 그사실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선장놈의 권세를 두려워하야 감히 사실대로 말을하지 못하얏습니다

『대장님 저의원수를 갑하주서요 그리하면 저는 생전에 그은혜를 다갑지 못하면 죽은뒤에 풀을 매저서라도 대장님의 은혜를 갑겟습니다

『그러고 은괴 삼백만냥을 빼앗서 백분의일만 저를주서요 제가아니면 저배가순양함이 아니고 상선인것을 알수가업서서 그재물을 빼앗지못할뿐 아니라 도로혀 피하야 가너라고 혀애를 쓸것이 아닙니까 대장님 어서 저의원수를 갑하주서요』

하는 창순은 눈물을 흘니면서 해적의 대장에게 매어달니듯이 하소연하얏다

창순의말을 정신업시 듯고잇든 해적들은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린다

『그것참 그럴듯한데』

『따는 그러하야 우리도 해적이지마는 요새 해적들이 여북 심한가 우리가 떠러 먹은것만 하야도 얼만가 가만잇자 하나 둘 셋 또 다섯 그만해도 금년으로만 여들쩰세 그러니 우리뿐인가…… 따는 상선들도 그러한 폐를내입측도 하지』

『폭 그러치…… 그런대 은괴 삼백만냥이 어듸가 그것만 빼앗으면 아주 땡일세 우리 대장에게 말하야서 쪼처가세』

『자 그러자 우리도 밤낫 이짓만 하것나 한번 옹혹하게 하야가지고 그만두야지 은괴 삼백만냥을 가지면 우리가 삼백명을 잡고라도 하나압헤 만냥씩은 될러이니 그만하면 무던하지 안혼가 그런데 우리가 말은 삼백명이라고 하지마는 실로 삼백명이 어듸되나 이백오십명이 되락마락 한대』

『그야 은괴만 실엇섯나 다른 제물도 만할터인즉 그배하나만 해실내면 우리들은 팔자고치네』

어던자들은 나죽한 말소리로

『야 나는 그까자 은괴는 고만두더라도 저기저배나 차지하얏스면 조켓다』

『어던 기지배?』

『지금 말하는 기지배!』

『이게무슨 답지못한 소리냐말이 만잇스면 천하만사를 마음대로 할수가 잇는데!』

이러한 말들이 [illegible] 너나오다

夏季衰弱恢復에

白血球喰菌現象의激增

食慾의 增進은 [illegible]收力이 亢進되는 素質을보이는것으로 即慢性[illegible]疾患에 잇서서는 病勢好轉의 顯著한 兆候이며 [illegible]血殺菌作用과 相俟하야서 大端히治療經過의 短縮을圖謀한다。

下熱劑를投與하지안코 階段的으로自然下熱

結核性疾患에잇서서는 醫師及患者가 가장[illegible]하는 日[illegible]熱現象은 結核菌毒素의 中毒에 依하야 일어나는 特殊한 症狀임으로 通常下熱劑를 投與하드라도 容易히 治療하기어려우나「와가모도」를 投與하면 [illegible]한 下熱劑를쓰지안코라도 自然히階段的으로 下熱의 傾向을[illegible]上에 나타내는것이 常例이다。

이現象은 「와가모도」가 中[illegible]을 [illegible]식혀서 一時的의 下熱을 圖謀하는 一般的下熱劑와는달너 體內에 白血球를增加식혀서 直接結核의 喰菌作用을 旺盛히하고 體內充實[illegible]增加等의 作用으로 間接으로 病原菌의 勢力을 壓倒하는現象에 不過하다。

結核性慢性疾患、慢性胃腸病、老衰、虛弱小兒等에對하야 「와가모도」와 가튼 生物劑의 發見은 확實히[illegible]한 感이잇던 化學藥劑에對하야 病原治療에 光明을주엇다고할수잇다。

只今은 大學、大病院의 處方用을 비롯하야 經驗잇는 醫師와 藥局에必備한 藥劑로서 普及을 보게되엿슴은 [illegible]이다。

腸組織을改組하고 便秘설사를조케한다

所謂、細胞엔지ㅣㅁ綜合作用의 本能을 맨들고잇다。

即 어떤綜合作用에依하야서 消化吸收作用이 旺盛하야지고 榮養狀態가 改善되는것만이라도 結核의 治療[illegible]에 好影響을주는것은 말할것도업스나 다시리바ㅣ제酵素에依하야 結核菌의 被膜을溶解하고 前項에 말한바와가치 白血球의 殺菌作用을 容易하게 함으로 治療經過의 短縮을 期待할수가잇다。

本來의 對症療法에依하면 便秘와 설사는 全혀相反되는 處置가 必要하나 이두症狀의 根本에잇서서는 全혀同樣인腸組織의 障害에서 오는[illegible]이다。

即腸壁組織細胞의 엔지ㅣㅁ作用이 衰退하는 關係인바 「와가모도」中의 活性酵素비타민、호르ㅣ몬等의 綜合作用은 腸機能의 根本인 엔지ㅣㅁ作用을 更生强化식히는 힘이잇슴으로 설사나便秘도 一[illegible]로써 消退케하고 健康便으로 恢復식힐수가잇다。

京都帝國大學에서 「와가모도」의 實驗

臨床藥物雜誌第一卷第四號는 京都帝國大學[illegible]部微生物學教室에서、[illegible]히興味잇는 實驗報告를 掲載하엿다。即 미리血液檢査[illegible]의 發見에、數日「와가모도」를주고、그後 다시 血液을 檢査하여보면 赤血球血色素及白血球의 增加가 [illegible]히顯著한것을 보게되엿다는것이다。

從來에ㅣ뼈[illegible]劑의、다른方面의 實驗은 적지안엇스나、直接血液에 미치는 그러한顯著한 實驗은 我國은 勿論世界醫學界에서도 [illegible]지못하엿슴으로、[illegible]病疾患의 治療에、至大한 貢獻을한것이라고할수 잇다。同實驗의 報告에는

「赤血球及血色素의 增加로、[illegible]가 補血、增血의 作用잇슴을 立證하는同時에 이것이 [illegible]壯劑로서 價値잇슴을 [illegible]할수잇슬것이다。(中略)白血球의 增加는動物에게 [illegible]力即殺菌作用을 增大케하는것은、明瞭한 事實이다 云云」이라고 [illegible]하고 잇는바、다른疾患에[illegible]하야、[illegible]의 一端을 [illegible]지 못하던[illegible]疾患이 「와가모도」의 投與로[illegible]著히[illegible]을 好轉케함을보면 그러한 [illegible]及殺菌作用이 大端有力한것이라고할수잇다。

보아스教授는 食慾素라 命名하다

「와가모도」는 [illegible]을恢復하고 病原菌을 殺菌하야서 抵抗力을增大식힐뿐안이라 다시强大한 食慾增進效果를가지고잇서서 [illegible]에 著効를보이는것도 實驗者들의 다가지 認證하는바로서 伯林의 醫學보아스教授는 「와가모도」主成分[illegible]를 [illegible](食慾素)라 命名하야서 [illegible]

結核菌의被膜을溶解하는 蜜蜂巢의寄生虫

最近歐洲醫界에 注目되고잇는 結核藥에「가레리아메로네라」(Galleria Melonella)라고 불느는 蜂巢의 寄生虫에서 製劑한것이잇다。

元來結核이 難治라고하는 原因의 一은 結核菌이 다른病菌과 도달너서 一種의 蠟樣脂肪質膜으로서 덥혀잇는 關係上모ㅣ든藥物도 菌體에 直接들어가기어려운데잇다하나 가레리아메로네라는 蠟樣脂肪質로된 蜜蜂巢를 食餌로하는 酵素를具備하야잇슴으로 이것을 藥劑로하야서 結核菌의 被膜溶解에 利用한것으로서 近代細菌學의 [illegible]메지니콥오드 이 酵素가리바ㅣ제란것을 證明하엿다。

注目할만한『와가모도』中의活性酵素

이 리바ㅣ제酵素는 其研究에依하야 但只가레리아 메로네라의 體內에잇슬뿐안이라 「와가모도」中에는 다른十數種에 達하는活性酵素와가치 多量으로 存在한것이 判明되고 諸種의아미노酸、비타민、구리고겐[illegible]性가루슘等 消耗性疾患의 恢復에有效한 許多한 榮養素와가치 [illegible]을비롯하야 全身의 機能을 强化하는

「와가모도」類似藥의 續出에 注意

近來本劑의 聲價높은것을 利用하야서 헤ㅣ뼤[illegible]或은 麥酒酵母劑의 이름을가진 類似藥이續出하고 [illegible]을 追求하는藥店에서는 이것을 「와가모도」와가튼 效果가잇다고 宣傳한것도不少하다그러나「와가모도」는 製法이至難한 發明特許藥으로서 絶對로 模倣할수는업는藥이다 名稱은 類似하나效果에잇서서는 多大한懸隔이잇다는것은 權威잇는各大學의 比較試驗의 成績에依하야서는잘알수잇는것이다。

藥價低廉

粉末 九〇瓦入 三〇日量 一圓六十錢
錠劑 三〇〇錠入 一圓六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하나、直接發賣元에서 送藥하기를希望하신時는 藥價만보내면 送金直時로 一個라도急送함

携帯至便 ポケツト壜 五十錢

發賣元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榮養と育兒の會**
電話芝 1175 1176 1177 1178 1179 1170
振替口座東京一七〇〇〇

「나치스」經濟政策 ①

購買力不伴한生産增大 大衆生活은窮乏

× 最近二個年半의 獨逸經濟의 動向은 五十億馬克에 가까운 資金을 通하야行한 政府의事業作興政策을 中心으로서 展開되엇다고할수잇다。五十億馬克의 政府資金에依하야 作興되엇든事業에는 道路、橋梁、運河의 建設、電氣、瓦斯、水道에關한 諸工事、住宅、公共建物의新築增築、修繕、鐵道、電信에關한諸事業等을 擧할수잇다。此等의 諸事業이 補助金交付에 依하야 膨脹하면 그만큼 此等事業의 從業勞動者增大、그에要할 諸原料의 需要는 增加될 것이다。此等事業의 膨脹은 他生産部門의 活況을 喚起하고 從業勞働者數의 增加에 伴한 彼等의 購買力의 增大는 消費、生産部門의 生産增加를結果케되엇스며 延하야는 經濟全體의 活況을 齎來할수잇슬것이다。

× 最近二個年間의 獨逸經濟的回復의度가 顯著하얏스니 今年五月의 生産指數는 三三年度의 年平均指數에比하면 七八%의 增加를示하얏고 生産財의 生産에 至하야는 그增加率이 實로 一一九%에達하얏다。生産增加에伴하야 貨物의國內輸送量、小賣商、百貨店의 賣上取引高도 또增大하얏다。三三年의 冬期는 六百萬人이라는 記錄的數字에 達하얏든 失業勞働者도 今年一月에는 三百四十萬人으로 減하얏고 五月에는 更히 百九十萬人으로 減退되엇다。

이가티 成果를보인것가튼「나치스」의 經濟政策도 그裏面에잇서서는 暗影이 잇스니 모든生産의 終局의 目的은 個人的消費이다。例하면 生産財就中 機械生産이 增加할境遇에도 結局은 此等의 生産手段을 使用하야 消費財의 生産이 增加될것으로서 景氣恢復의 第一前提는 消費大衆의 購買力增大에잇다。反對로 消費者大衆의 購買力增大를 伴치안는 生産增大는 必然히 꺽구로지고 마다할수잇다。

× 伯林景氣研究所의 計算에依하면 一九三四年度의 俸給生活者 勞働者의 收入은 二百九十五億馬克으로서 三三年度에比하면 三十五億馬克의增大를示하고잇스나 이數字를보고서 最近二年間에 獨逸의勤勞階級의購買力이 一二%增加되엇다고 結論할수는업다。「나치스」政府로된後 黨에의寄付라는 名目下에 强制的으로 賃銀、俸給中에서 빼앗는 部分이 顯著히 增加하얏스니 「시멘스」工場에서 일하는 어떤勞働者는 三十二馬克의 週賃銀中에서 甚할때는 二十馬克을 빼앗긴다고 不平을 말하엿다고잇서 적게보아도 此種의獻金이 賃銀의平均 三%에는 達하리라한다。이外에 政府、地方公共團體의 支給하는 失業手當이 著減하얏다。此等의手當은 賃銀과 同様으로 勞働者의 購買力을 左右하는 要素임은 勿論이다。一九三四年度의 失業手當支給額을 三三年의그것에比하면 約十七億馬克이 減하얏다。從하야 그만큼 勞働者、俸給生活者의 收入增大의 意義는 減殺된것이다。

消費者大衆의 實質的購買力을 計算함에는 更히 生活費의 騰貴를 考慮하여야할것이니 獨逸의 生活費指數는 一九三三年初부터 三四年末까지의 사이에 四·六%上騰하얏다。

× 이가티 생각하면「나치스」經濟政策上의 二年半의 獨逸에잇서서 消費者大衆의 購買力은 增大치안엇슬뿐아니라 참아리 減少하얏고 그生活은 窮乏化하얏다는 結論을 할수가잇다。그證據로는 最近二個年에 生産財의 生産은 一一九%增大하얏슴에 不拘코 消費財의 生産增大는 겨우 一七%를示하얏다(今年五月의指數의 三三年月平均指數에 對한百分比) 消費財의 生産이 一七%增加하얏것은 在庫品의 縮減、國産消費品의 生産奬勵等에 依한것이라고 생각할수잇다。生産財生産部門과 消費財生産部門間의 發展이 如斯히 不均衡으로된것도 獨逸經濟의 暗影의 一이라고 할수잇다。웨그러냐하면 그것은 生産財의 增加가 專혀 人工的事業作興政策의 結果에 基한것인것、그政策의 終了와同時에 生産增加도 停滯할 運命에잇는것、生産增加가 急激하얏드니만큼 그뒤에올 反動이 深刻한것等을 豫想할수잇는때문이다 (終)

朝鮮對外國貿易 輸入超過가激增

八個月間入超增加 七百六十餘萬圓

今年一月로부터 八月까지의 朝鮮對外國貿易狀況을보면 (單位圓)

○輸出 四〇、六三八、九〇八
內譯 朝鮮産品 二二、一三八、九六七 日本內地産品 一八、五三六、〇五四 外國産品 七一三、一七八
○輸入 六五、五七一、五四三
○入・超 二四、九三二、六三五

에達하얏는바 前年同期와 比較하면

輸出 五、〇六六、九二二 減
輸入 一二、七三八、九四六 增
入超 七、六六七、〇二四 增

以上과가타야 輸出은 五百萬圓減에 輸入은 千二百七十餘萬圓의 激增을示하야 入超가前年보다 七百六十餘萬圓이 增加되어 對外國의 不振을말하고잇다。

輸入全面的增加

各重要品別로본것

이제 八個月間朝鮮의 對外貿易重要品中 그累計에잇서서 顯著히 增減되것을보면 如左하다

輸出重要品價額

品名	今年	增減(△)
米及籾	[illegible]	[illegible]
(數量石)	(一〇九、〇四三)	(六六、六七七)
鮮魚	六〇四、六六四	△一四四、二三三
麥酒	二五〇、五三一	一三九、七六四
革類	一六〇、七一八	△一六〇、五三八
綿織絲	四四四、五七四	△二七〇、四〇八
綿織物	二、三五一、八〇一	△一、〇三七、四九二
護謨靴	一、〇四七、九二四	一六四、九六六
세멘트	七三六、三六六	△三五七、六四〇
陶磁器	四一〇、一三三	一八八、三八七
鐵	四、四七二、〇四五	一、七五〇、二四四
琺瑯鐵器	五八二、九四二	三一七、三三三
木材	三九六、四一〇	△三九〇、〇一七
其他諸品	二五、九一〇、七一〇	二、七〇〇、七一六
合計	四〇、六三八、九〇八	五、〇六六、九二三

輸入重要品價額

品名	今年	增減(△)
小麥	九三六、三六六	三七、三六二
粟	一五、六三〇、二九四	四、五三四、三三七
(數量石)	(八二一、〇〇三)	△(二六四、六三六)
玉蜀黍	一、二五一、〇〇一	五三三、〇四一
蕎麥	六六九、四四六	一、二八〇、一二四
豆類	三〇七、〇二七	△六七五、九二三
胡麻子	八四八、四四六	三八五、八七六
蕃椒	四〇〇、九七七	一三九、九九〇
天日鹽	一、二五四、〇五一	△三〇〇、七七九
葉煙草	三三七、一八三	一、六四〇、四四九
原油及重油	二、〇九六、二七九	六六五、八二六
揮發油	二、〇一〇、七五三	三八八、四四一
燈油	五七七、九八二	△二三六、二〇七
繰綿	一〇五、六六九	△一、七七七、八七九
綿織絲	一四七、一六九	△四三八、一一六
柞蠶生絲	四、四一五、一一七	△一〇〇、〇八〇
支那麻布	一、五四四、〇八二	△二四六、一一三
製紙用パルプ	三九三、一五三	二五五、六〇八
印刷料紙	一四三、二五三	△一八二、六九三
石炭	四、〇八二、八六七	二四三、〇六八
鐵	一、五三二、六九九	七一四、二三〇
機械類	三、九四四、二六三	一、四九七、三七〇
木材	三、三六八、四五三	一、三七五、五一一
豆粕	五、〇〇三、二一七	△三三二、五七九
其他諸品	八、四四三、四〇一	三、五〇四、九〇八
合計	六五、五七一、五四三	一二、七三八、九四六

慶南三十掛 平北廿九掛七

各道繭値基協定

夏秋蠶繭値基 各道協定은 旣報行한 三日朝鮮에와서 釜山工場와가티 全北의 總督府協定三十掛와、平南의 三分低인 廿九掛七分外에 慶南三十掛、平北五分低의 廿九掛七 繭檢査를終了하고 五日入京하야殖産局長을 訪問하고 纖續하야七八兩日에亘하야 總督府殖産局과 電球工業의 朝鮮과 日本內地의 統制協議를 行키로되엿다 한다

電球統制 一元化强調

商工省事務官電球輸出合代表者一 ... 로決定한바가 朝鮮製絲協會에通知가잇섯스며 江原、黃海兩道는 目下協定中이라한다

米買入 申込數量 逐日增加!

【東京電話聯合】農林省發表=九月三日公定價格에依한 米買入申込數量은 如左하다

事務所	申込數量	累計
東京	三五〇俵	四、五二〇俵
大阪	三〇六	一〇、八〇三
酒田	二三六一	三五、三三〇
神戶	一、一〇四	二七、七一五
岡山	—	一、七一三
熊本	—	九二六
門司	—	一、一五一
合計	六、五三二	八九、七四一

三六、三六五石斗 累五六、八六六石四斗

出穀期의傭船

朝郵當分中止

朝鮮郵船에서는 例年 新穀出荷期前에 冬場配船計畫을樹立하고 不定期船腹은 傭船키로되엇는데 今年은 同盟會의 機能停止에依하야 朝鮮米積取界가 混亂狀態임과 同社의增資改革案等으로 冬節配船方針이 確立되지안허 今秋의傭船은 當分中止키로決定하엿는데 昨冬出穀期의 傭船總噸數는 二萬三千噸으로 現在傭船期限이 못된때문에 傭船中의것은 一萬四千五百噸으로 昨冬의 最高傭船에比하야 八千五百噸의 減少이엇다

綿花取締規則

十日前後道令으로公布

京畿道 棉花取締規則은 棉作不振으로 今日까지制定公布되지못하얏스나 道農務課에서 棉作奬勵에 進出하는同時에 取締規則을 制定公布코저 立案中이든바 近者脫稿되엇슴으로 五日午後關係者가集合하야 逐條審議後、富永知事決裁를맛고 今月十日前後에 道令으로써 公布되리라한다

新義州에米倉

建設을陳情

平北穀物協會에서는 新義州에米倉支店設置要望件을 過般總會에서 決議하얏슴으로 今回 平北知事 農林省京城出張所長 朝鮮總督 朝鮮米倉會社長에게 對하야各其陳情하얏다한다

全朝鮮郵便貯金

四千九百萬圓

【遞信局調査】八月末現在全朝鮮의郵便貯金現在高는 如左하다

預金總額	四九、〇一六、三五三圓
預金者數	一、三七四、三二八人
一人當金額	三五圓

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預金者數로一分增加이오 預金額은 一分强減이엇다

北滿日本商不振

【商通新京電話】最近 新京商工會議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奧地日本商人의 營業狀態는 最近 急히 惡化하야 그金融逼迫은 想像以上으로 各方面의 日本商人이 거의 모두 危機狀態에 빠젓는데 그主因은 一、奧地進出日本商人의所持資金은 一千萬圓으로 四分의一拂込으로하고 二十萬株中 十萬株를 日本糖業聯合會의 明治、日糖、鹽水港 四社가 各 二萬五千株식을 引受하고 其他聯合會以外에서 一萬株를 引受하야 그殘餘를 右事業發起者인 赤司勞太郞과 그一派가 若干을 引受하고 그殘餘를 一般에 公募키로 되엇는데 右會社의設立은 日、滿糖業統制의 必要上 出發한것이라고 한다

二、期待하든 들의購買力이 엇든三、小金融의不圓滑等인데 이에對하야는 現在何等의解決方法이업서 이대로推移하면 不遠한將來에는 奧地進出日本商人의大部分이 다시滿鐵沿線의大都市로 後退치안흘수가 업게되리라고 한다

滿洲製糖會社

資本金千萬圓設立

【東京電話聯合】滿洲製糖會社設立計畫은 最近 具體的 成案이 確立되엇슴으로 不遠 創立總會를 열기로 되엇는데 資本

大川系의人絹「팔프」

會寧서企業計畫

工場基地買收에着手

會寧稅關으로부터 總督府에온情報에依하면 會寧近郊豆滿江沿岸에서 人絹「팔프」工場이 敷地買收着手를傳하야 坪十錢의 地價가 四五十錢으로 騰貴되엇는데 이것은大川平三郞氏의 主宰하는東滿社는創立과 同時에 滿洲國當局으로부터 工場建設의 認可가 되엇으로써最近現資本金 五百萬圓을一千萬圓으로 增資하야 十一年度부터具體的으로 着手하기로方針을 決定하고敷地를豆滿江流域에 目下物色中이라는것인데 地價其他關係가 有利하면 條件이 優越한 朝鮮에 新設할 意向인듯하다

經濟界消息

○京城天然氷臨總=京城天然氷會社에서는 來九月十五日 午後二時부터 同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京城府內의 天然氷業者合同에 參加可否決定件을 附議하기로 되엇다한다

九月分漁油落札

二圓七十八錢에

魚油共同販賣九月分의 不定量入札은 朝鮮窒素에 鑛當二圓七十八錢으로 落札되엇는데 前月에比하면 十七錢高、同定量入札에 比하야 十三錢低이라한다

産金奬勵에頓挫?

惡德『뿌로카』의跋扈等으로

鑛區出願漸減狀態

産金奬勵는 昭和九年實施期에入한以來 一攫千金을 꿈꾸는鑛山家激增으로 鑛區出願件數가 每月激增되어 今年에入하야 一月以降八月까지의 出願이 實로七千五百五十二件에 達하야 前年同期보다 約二千五百餘件의 增加를示하엿스나 最近에至하야 惡德『뿌로카』의不正取引에 依하야 日本內地資本家의 實買躊躇가 影響되어 六月以降漸減을 取하야 當局에서는 如斯한現象을 遺憾이라하야 今後惡德『뿌로카』의徹底的取締를할方針이라한다

國民政府財政逼迫

紙幣『인푸레』決行

上海에紙幣印刷所設立計畫

紙幣洪水時代出現

【上海五日發聯合】災害의頻發로 農村의疲弊 産業의不振及 軍費加重으로 極度의 財政破綻에 直面한 國民政府는 紙幣『인푸레』決行의 不得已에至하야 八月中旬以降 現在까지의 紙幣輸入率은 一億六千萬元(紙幣는全部米國에서印刷)에 達하고 更히米國으로부터 一億四千萬元의輸入을 불모양으로 紙幣洪水의소리가喧傳되어 그形勢가 자못 憂慮됨에 不拘코 財政部는 更히上海에紙幣印刷所設立을 計畫하고 百五十萬元의 經費를計上하야 米國財務省囑託인 米國紙幣製造會社의『맛로데·카ー스』氏를招聘하야 者着準備를進行하고잇다한다

煙草小賣人

協會設立認可

計畫中이던 煙草小賣人協會의 設立은 九月二日附 財團法人으로서 認可되엇는바 同協會는 一、煙草小賣人으로서 同會의目的에 贊同하는者를會員으로함 一、從來의 小賣人組合에 屬한財産은 總히 協會에 寄附케하야 協會의 基本財産으로함 一、協會는 會員의 相互共濟의趣旨에 依하야 會員의 營業勸長 會員의 災害救濟等을할 等이라한다

米日爲替暴落

【京城四日發聯合】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하면

▲東京爲替(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三 買 二十九弗四分
對英 賣 一志二片卅一分五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五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三 買 二十九弗四分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五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豆粕及大豆의

運賃割引延長

滿鐵線으로부터 朝鮮內輸入豆粕及大豆(農會叺)의 運賃割戾及割引은 今年八月末으로써 期限滿了이나 更히一個年(十一年八月末까지) 延長實施키로 決定하얏다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東京期米 ... 正租(仁川)改良 ... 一斤 仮在米 ...
◆市中金銀價 金 十一圓十六錢 ... 銀 [illegible]
◆株 東新 新 ... 新 ... 日産 ...
◆商品 大阪綿絲 ... 大阪人絹 ... 大阪棉花 ... 大阪砂糖 ... 無現 ...

北中政局重視

中國의親日政策好感은 決코적은것이아니오 이것으로써 秋高必至의 一理由로 삼어왓는데 이제宋哲元氏의 平津衛戍司令就任으로 北中政權動向이 重大視케되엇다。蔣介石氏가 北方에서가장 殘威를밧고잇는것은 實力五萬上을 가지고잇고 宋哲元氏인데 宋氏의 反蔣氣分에겁이나서 宋氏를 司令에就任케 하얏다한다 舊馮玉祥部下의 排日軍으로오래동안 버티던宋軍이果然親日策으로 轉換할지? 宋司令의 今後態度가 큰關心을갓게되어 宋氏親日이면· 큰好感이不無할것이오 萬一 排日態度不改면 日中親善은畫中之餠으로되어 큰失望이 올모양이다。

東新、日産動向

東新、日産等의 人氣株는 事業株의訂正高에作하야 十圓內外의反良를보일뿐이고 머리가무거울

商況 (五日)

揉合裡에 少高

前場不鐵

臨時理事會形如何를로나 氣迷彷徨하야 閑散細刻이엇스니 卽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産三十錢高인 七十六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二十四圓二十錢 大新八十六圓八十錢 一本이엇다

後場小高

後場은 東新百四十一圓三十錢 日産七十六圓三十錢 朝新二十五圓八十錢에少軟寄後諸株一段硬化하야 上進裡大引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六	五四	五四二六〇
東新	四六	四七	八〇〇九〇
大新	一八	六一	七九三〇〇

實物前場取引

實賣高二百枚

▲東北鐵道(鑛業三)▲에라파이新一 ▲人肥新(二六)▲新購新三(一四) ▲宇治電(四)▲大同電力(四)▲同新(三)▲東拓(三)

市場六感

株

▲東新、日産의 人氣株動向이 秋市勢의 大勢를 決할것이라함一般이 注目▲此等投機株가 先驅한 事業株利喰一息으로 반드시 人氣를 集中케 되리라하야 期待가 만흔바 果如何▲排日의大將 宋哲元氏의 平津司令就任을 어떠케보면 좋흘가? 宋軍의 排日、親日 어느政策일지 이것으로 株式市場에는 큰波瀾이 豫想되니 今後 形勢를 重視치안흘수업는판▲株價의 推移로 본 雜株一般의 傾向은 昨年十一月이

米

一番底이고 今年 六、七月이 二番底로서 有力한 大底를 形成하야 一巡休養後는 再活躍이 期待된다고 强氣는 樂觀▲大底이던 말던 아즉도 生冷되지안흔것만은 事實▲强弱云爲보다 먼저 內外事情透視가 急務?

當限의 今後는 渡米의蒐集이 如意치 못함으로 買方針이 當을得하엿다할수잇고▲中限戰에잇서서는 新米의 出廻가 旺盛하지 못한때임으로 此限에對한 今後方針은 確定할수는업는걸▲그런데 先限만은 新米出廻期에受渡되는限月인만큼 忌히買成을 할수잇다 그러나 此限 亦是 만만치안흔걸▲可謂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金證券擔當者

金金證券株式會社는 業務擔當者를左와如히變更하얏다
▲新擔當者 元孝燮▲新擔當者 康金夏

期米 一段高나 伸惱

前場反撥

昨後場 阪地二十九圓九十二錢止와共히 二十七圓四十錢에 揚寄止하든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九十六錢인 四丁高를報하고 二十七圓五十錢인 二丁高로 場寄始한後 阪地五節 三十圓〇六錢으로 九圓九十七錢에 反落하얏슴을 따라 六十四錢으로 五十一錢까지 下押하더니 結局 阪地三十圓〇五錢으로 反騰止場함을 作하야 六十一錢에 頑强히 場을 止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九錢에 二丁低로 始場後 二節五十一錢에弛하고 五十四、五錢間 細刻으로五十一錢에止場하다

買氣去益熾烈

氣溫의低下로

二百十日을 無事히 經過하얏슴을 딸아 一時 買氣가 旺盛하엿스나 其後 日本內地의 中部以北은 連日 冷雨를 齎來하고 氣溫은 日本內地 全土를 通하야 二度乃至 三度의 低溫으로 冷害가 不少하야 買氣益益熾烈

中限戰의今後

波瀾萬疊可期

今中限은 客月에 東京山種一派의 實物을비롯하야 當地場 有力側의 實賣成으로 先限時代에도 決對低落을 不許하지아니한는바 一般의買氣가 中限으로 集中하는 觀이잇다 要하면 東阪兩地에서 軟派의 唯一한 猛將이로서 當中 約二十萬石의 解合을 懇乞하야 旣히 解合이 成立되엿슬뿐아니라 馬越一派가 突然 陣頭에 나서서 猛烈히買進하야 벌서約七十丁의 反高를 示하게함을 보면 임의 疲弊한 山種軍이 勝利할것이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그러한 內容을 窺視한 一般은 先限보다도 中限의 買妙味가잇다하야 買進不息하는 光景이다 實로 此限은 新米端境에도 米의 出廻가 向早한때임으로 渡米의 蒐集이 如意치못할것이라 하야 買方은 絕對 滅色이업시 姿勢를 變치안코 잇다。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當限 ▲買方
[illegible]

商況 (續)

晤商의 關係로 中限은 當限高의牽制를 밧는光景▲當限買方의渡米蒐集이 그얼마인지는몰으나 境遇에 依하야는意外의 大爆發을 示할지도 亦未知▲그런데 本月에 入한後부터 連戰連勝하는 硬將 田中眞一派는 依然 軟派로 豹變하고 그代身에 馬越一派가 硬派의 先鋒이되엿다▲田中眞은 勝戰後임으로 對抗力이 相當하다고 할수잇스나 疲弊한 山種一派의勢力은問題視하지도 안는모양▲그런데 新進硬派인 馬越一派야말로 바로 眞鈇味가 잇게나오다 그러나 今後 決戰은 亦未可知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買方 地場利喰 中東側、正米側▲買方 神戶側、地場小口側

各地正米

京城續伸

期米의新高值에 刺戟되어 氣配更히 堅調를 示하야 上伸인 丸仁三等三十一圓四十錢、三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

仁川昂騰

實物拂底로 依然 取引은 閑散을未脫하나 淸算期近의 市勢가 繼續하야 三十錢昂騰을 告하야 丸仁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釜山保合

處分賣氣가 動키始하나 依然 買氣不立이오 日本內地不冒로 淸算高에도 不添이나 市勢는 保合인 角ヶ三等三十一圓 四等三十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大邱一息

日本內地와의 交換으로 實行不振이 深刻化하나 淸算高와 實物薄으로 市況은 沈靜裡에 保合인 角ヶ三等三十二圓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群山奔騰

産地는 作況樂觀으로 買氣潛在의 모양이나 受米의 好賣行과 所持의 激減으로 定期續進을 옷고 賣物皆無의 市場으로서 氣配도 三十錢奔騰을 告한 菱ヶ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四圓

木浦反撥

捕下를 目捷에두고 日本內地로부터는 照會만잇고 實物凋渴과 淸算의 續騰을 보고 人氣急硬化하야 氣配一氣로 三十錢反撥하야 丸ホ多鷹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雄町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株式 (五日)

◆朝取短期◆ 朝取 同新 鐘新 大新 東新 日産 拓新 日窒 帝人 朝銀新 [illegible]

◆朝取期米 (五日)◆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四 五 [illegible]

◆大阪長期◆ 東株 同新 鐘紡 同新 大株 同新 日糖 日産 郵船 同新 [illegible]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期米◆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朝鮮內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五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現物糖(ST)… 賣買中價二〇·七五圓 現物D格八〇〇圓 [illegible]

金融 (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五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スカユ期麥◆ ◆鰯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